

# 日帝期 清州地方의 民族教育運動

-清南學校를 중심으로-

全 淳 東\*

崔 東 峻\*\*

## I. 序論

### II. 清南學校와 民族教育 運動

1. 清南學校의 設立
2. 望仙樓의 移轉과 教育의 活性化
3. 教育의 展開와 民族意識
4. 神社參拜와 休校

### III. 崔昶楠의 生涯와 民族教育

1. 崔昶楠의 民族意識 成長 背景
2. 崔昶楠과 兒童文學
3. 崔昶楠과 한글運動

## IV. 結論

## I. 序論

한국교육사에 있어서 개화기 및 일제식민지 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강의 근본 방책으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종래의 鄕校·書堂 등 봉건적 교육체제로부터 근대적 교육체제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였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면은 청주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청주는 古來로 '선비의 고장', '忠節의 地方', '教育의 都市'로 불려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선비들이 이 지역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왔으며, 개화기와 일제 시대

\* 忠北大學校 歷史教育科 教授

\*\* 前 世光高等學校 校長

1)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 지배기간, 한국 교육사에 관한 연구상황과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한규원, 1997.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국학자료원)의 서론부분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에는 애국지사들이 대거 배출되고, 자주적인 민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지방이다. 특히 1919년 3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 청주 만세운동, 1927년부터 일어난 청주지역의 신간회 활동, 1930년 1월 21의 청주 학생운동 등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일련의 자주적인 민족운동은 이 지역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었다.<sup>2)</sup>

그런데 이러한 민족 운동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고 또한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교육이었으며, 그것도 특히 민족교육과 반일 구국의 방편이 된 私學이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日帝期 청주지역에는 몇 개의 공립학교가 있었다. 1907년에 개교한 청주 최초의 공립학교인 淸州普通學校(現 舟城初等學校),<sup>3)</sup> 1933년에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개교한 제2공립보통학교(壽町公立普通學校, 현 교동초등학교), 1937년에 개교한 石橋公立普通學校 등 청주 지역에 몇 개의 공립보통학교가 존재하였다.<sup>4)</sup> 그런데 이러한 공립학교는 忠良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일제의 교육정책 하에 식민지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반면, 이 지역에는 경제력을 가진 선각자나 종교계에 의하여, 여러 사립학교가 개설되어 있었다.<sup>5)</sup> 새 학문을 지향하는 개화사상과 교육구국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립학교는 애국계몽의 일환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교육 재정도 빈약하였으며, 더욱이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통제로 말미암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또는 자진 폐교되

2) 충청지방 독립운동사에 대한 개관은 박결순, 1997. 「충청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성격」, 『金顯吉教授定年紀念 郷土史學論叢』(수서원), 187~211. 참조

3) 이 학교는 윙희원년(1907) 5월, 구한국 학부령에 의하여 청주군청 부속건물에서 개교하였고 12월에 신고사를 지어 이사하였다. 당시는 군수가 교장을 겸하던 시절로, 청원군수인 閔泳殷이 초대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교사로 山下義正, 副敎員 崔東善 외 1명이 학생 70명을 교육하였다. 1908년에 민군수가 그만두고 후임 군수 尹泰興이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1909년 5월 윤교장이 세상을 떠나자 元大奎가 제3대 교장으로 1909년 8월 申昌休가 군수겸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1910년 한일 합방 실시로 군수겸 교장이 폐지됨과 동시에 일본인 교장(岩重善太郎)이 학교운영을 맡게 되었다. 1922년에는 남녀 학생수가 1084명, 1930년에는 1259(남 927, 여 332)에 이르렀다(大熊春峰, 1923. 『淸州沿革誌』, 138~139).

4) 이 외에 오늘날 청주시로 편입되어 있으나 당시 청주군 강서면 비하리에 江西公立普通學校(1920년 설립)가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 강서초등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읍내에 일본인 자녀만을 위한 학교로 1915년, 지금의 상당구 문화동에 설립된 東町小學校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청주중앙초등학교가 되었다.

5)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1997. 『淸州市誌』上, 720~721에는, 1909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참고로 청주시 사립학교 13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普成學校, 彰東學校, 淸東學校, 新明學校, 淸北學校, 塔洞普成小學校, 淸明學校, 德新學校, 私立淸南學校, 淸信女學校, 私立淸西學校, 私立淸東學校, 私立淸北學校 등이다.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학교 전통을 유지한 것은 오직 清南學校와 大成普通學校<sup>6)</sup> 뿐이었으며, 이러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적극적으로 민족 교육을 실시하여 민족의식과 반일 감정을 고양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기 중원지방의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청주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 등 정치·사회적 운동이나 활동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족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정신사의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한 교육구국운동의 측면은 의외로 소홀한 편이다.<sup>7)</sup> 그것도 사립학교인 大成普通學校에 관해서는 대성학원에서 편찬한 『大成五十年史』와 같은 학원의 역사를 기술할 때 부차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清南學校는 민족의 수난과 구국을 끌어안으면서 청주 지역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 아니다.

이에 본고는 청주지방 최초의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일제의 민족 수난기에, 어떻게 민족적 자주의식을 배양하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여 나갔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민족의 수난과 구국과 교육을 한 선상에 놓고 고찰함으로써, 청주지역 민족교육의 일면을 이해하는 試論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 대상시기는 청남학교가 설립된 1904년부터 神社參拜 문제로 휴교처분을 당하던 193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 II. 清南學校와 民族教育運動

### 1. 清南學校의 設立

19세기 말 복잡한 국내 정세와 외부 열강의 패권 쟁탈이 중첩된 가운데, 조선정부는 甲午更張(1894)으로 봉건적인 전통사회를 타파하고 정치·경제·사회·교육면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여 나갔다.

정치적 개혁으로, 우선 자주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開國 年號를 사용하였

6) 天道教 청년회 청주지부장이었던 徐昌壽가 동지인 金英植 池晶夏와 함께 大成學院(1922년 3월 발족)을 설립하였으나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정식학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청주 지역의 교육사업가 金元根·金永根 형제가 이 기존의 사립학교를 인수하여 1924년에 大成普通學校로 개교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기원이 되었다(1974. 『大成五十年史』, 53).

7) 이 부분에 관한 논문으로서는 안재명, 1984. 「충북지방의 선교활동에 관한 고찰」 『논문집』 2 (일신여고)와 이덕주, 1997.10. 「한국 기독교 문화유적을 찾아서 -충청도 선비들의 믿음이야기2-」 『기독교 사상』 10월호에 일부 소개되고 있을 정도이다.

다. 그 동안 구별이 분명하지 않던 行政府와 宮內府를 분리하여 행정부는 議政府와 8개 衙門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은 과거의 8도를 23부로 나누었다가 2년 뒤에 13도를 두었으며, 도의 지방장관으로부터 사법권·군사권을 독립시키고 경찰권도 일원화하였다.

경제면에서의 개혁으로는 재정의 일원화, 은본위제의 실시, 조세의 금납제 실시, 도량형의 개정과 통일 등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는 과거제의 폐지, 신분제도의 타파, 고문 및 연좌제 폐지, 조혼의 금지, 재혼의 허용, 적서 차별의 철폐 등 정부가 일대 혁신을 가하고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때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일은, 교육부문에 있어서 일대 개혁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종래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禮曹'을 '學務衙門(후에 學部로 개칭)으로 개칭하고, '學務衙門告示'(1894. 7)를 발표하여, 정부는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치하고 반상의 구별 없이 교육을 보급하겠다는 이른바 기회 균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어 1895년 2월, 고종황제는 일종의 教育立國詔書인 '教育詔書'를 전국에 내려, 근대 교육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중흥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렸다. 이에 의하여 한성사범학교관계, 외국어학교관계, 소학교령 등을 공포하여 신 학제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여 나갔는데, 이 소학교령에 의해 1895년, 서울에는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와 壯洞·桂洞·貞洞·絀洞 등의 소학교가 설립되었다.<sup>8)</sup>

충북지방에는 建陽 元年(1896) 9월에, 경기 관찰부를 비롯한 13개 관찰부와 한성부를 비롯한 3개부, 인천항을 비롯한 4개항, 濟州牧과 楊州郡을 비롯한 17개군 등 38개소에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학부령 제5호에 의해, 당시 관찰사가 소재한 충주에 최초로 소학교가 설치되었다.<sup>9)</sup> 그 후 황간, 청주로 공립학교가 확대되어 황간보통학교(1905), 청주보통학교(1907) 등이 설립되었다.<sup>10)</sup>

한편 청주에서 제일 처음 설립된 관립 초등학교는 융희 원년(1907)에 건립된 청주보통학교이다. 이 학교는 구 한국 학부령에 의해 청주 군청 부속건물에서 개교한 후 12월에 새로운 교사를 지어 이전하였으며 1937년에 榮町公立普通學校로 개칭되었고 1943년에 淸州舟城國民學校로 그 교명이 바뀌어 오늘의 주성초등학교가 되었다.<sup>11)</sup>

그런데, 이 청주보통학교보다 앞서 이미 淸南學校(廣南學校)가 존재하고 있었다. 본래 청남학교는 민족적 기운이 팽배하던 1904년, 金泰熙·方興根·金元培 등 교육구국의 이념을 가진 청년들에 의해 방홍근의 사저에서 '널리 인재를 모아 교육한다'는 뜻에서 廣南學校로 출발하였다. 방홍근의 사저가 학교 교사로 사용되었으며, 대표격인 학

8) 김영유, 1997. 『한국개화기의 교육』 (교육과학사), 55.

9) 위 책.

10) 忠淸北道教育委員會, 1979. 『忠北教育史』, 172~173.

11) 주3).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1997. 앞 책, 719 ; 위 책, 172.

교장은 김태희가 맡아 학교를 운영하여 나갔다. 이 학교는 개화사상에 의해 새로운 학문을 교육하는 청주지역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근대 학교의嚆矢이다.

그후 이 학교는 1908년에 교명을 淸南學校로 바꾸어 청주지역 민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2)</sup> 이 청남학교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의 문제로 1936년에 일시 휴교처분을 당하였고, 시세의 질곡으로 학교명이 1945년 잠시 成南學校로 개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공립학교가 되면서 민족 교육의 보루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하여 '청남'이라는 학교명을 다시 환원하여 되찾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 청주시 영운동에 위치한 청남초등학교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도 청남초등학교는 해방 전 청남학교의 일부 학적부와 졸업대장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어쩌면 공백으로 돌아갈 뻔한 일제기 청주지역에서의 민족적이고 근대적인 학교교육의 면모와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13)</sup>

청남학교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청남학교 연혁지에는 해방 전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04년 11월 1일 : 淸州郡 南州內面( 現 南門路 1街) 瓮城里에 私立 廣南學校

創設. 設立者 方興根 金泰熙(代表) 金元培 氏等

1908년 8월 1일 : 舊韓國學部大臣 設立許可 設立者兼校長으로 閔老雅氏(美人)就任

1910년 4월 1일 : 設立者變更 桂君(美國人)氏 引受經營

1921년 4월 1일 : 學制變更 六年制로 昇格(四年制에서)

1922년 10월 5일 : 校舍新築“淸州青年會資材寄贈”(現 望仙樓 第一教會內 建物)

1935년 4월 15일 : 開校 三十周年 記念行事 舉行<sup>14)</sup>

12) 이 학교를 '淸南學校'라 명명하게 된 배경은, 학교가 淸南門(청주 읍성의 南門)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청주를 중심으로 東·西·南·北에 각각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괴산 청천리의 청천교회에 淸東學校(교장 李鍾吳), 청주 신대리의 신대교회에 淸西學校(교장 吳天甫), 목방리의 목방교회에 淸北學校(교장 安慶淵)라는 명칭에 따라, 청주읍교회에 속한 이 학교를 청남학교라 명명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청동·청서·청북학교는 1909년에 이르러 정식인가를 받아 보통교육과정을 교육하였는데, 이들 학교는 각 지역 농촌을 계몽하고 문명을 되치하며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나, 청동학교는 곧 사라진 듯하고 청서학교와 청북학교는 재정난과 일제의 간섭을 잘 극복하면서 어렵게 유지하여 오다가 신대리의 청서학교가 먼저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목방리의 청북학교도 끝내 1927년경 소멸되고 말았다. 그 외에 또 기독교 학교로서 여성교육을 담당한 淸信女學校, 괴산 교회에는 郭信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13) 졸업생 학적부는 제15회 졸업생(1925년 3월 졸업) 이후의 것만 남아 있으며, 졸업대장은 제1회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졸업대장에는 계인이 없고, 또한 대장을 작성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해방 후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다시 정리된 것으로 추측된다.

14) 『基督申報』 1935년 3월 27일자 기사에 “이 (청남)학교는 파란 많은 30여년을 지나 오늘에

- 1936년 10월 12일 : 神社參拜 不應으로 休校處分
  - 1936년 10월 20일 : 當局에 順應하여 다시 開校하다
  - 1936년 12월 4일 : 設立者 兼 校長 變更 崔東善氏 引受
  - 1938년 4월 1일 : 校舍移轉“清州市永雲洞127番地 現校地로”
  - 1942년 7월 1일 : 設立者 兼 校長 變更 金龍泰氏 引受經營(土地七十斗落喜捨)  
校舍 新築
  - 1945년 4월 1일 : 公立학교로 昇格 成南國民學校로 改稱
  - 1945년 8월 15일 : 光復 “八·一五 解放”
  - 1945년 9월 24일 : 清南國民學校로 校名 還元開校
  - 1945년 9월 24일 : 初代校長 朴鼎植 氏 就任
- (이하 생략)

라 하여 그 역사적 변천 내용이 비교적 요령 있게 個條式으로 정리되어 있어 학교의 변천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할 점은 청남학교의 설립 연대에 관한 것이다. 청남 학교의 연대는 1903년 설<sup>15)</sup>과 1904년 설이 있다. 1987년에 간행된 『清州市誌』는 1903년의 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국에 보고한 선교사들의 활동 보고에 따라 역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것은 “밀러(민노아)씨와 김홍경씨가 1904년 청주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그 도시의 매우 훌륭한 청년들이 이미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6)</sup>라는 기사에 입각하여 1904년에 이미 학교가 있었으니 그보다 빠른 전 해인 1903년 4월 1일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그 학교의 성격 및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조직과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지 현재 상태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편, 桂君(Edwin Kagin)선교사의 보고서를 보면, 1904년에 청남학교가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이르렀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청주읍교회당에 소열도 교장의 사회로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개교 30주년 기념식 거행 날짜는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19일’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15)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1997. 앞 책.

16)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역사편찬위원회, 1998. 『충북노회사료집』, 53 ; 『충북노회 사료집』은 ①충북 지역 초창기 선교사들의 “연례보고서” 및 “미국장로교 한국선교사”(Histor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U.S.A) 가운데 충북지방에 관련된 영문 자료들을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②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京忠老會錄” 등의 회의록에서 충북지방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실었으며, ③초창기 교계신문 기사 중 충북지방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난해한 옛말과 한문투의 말씨를 한글로 고쳐 소개하고 있어 충북지역 기독교사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료집이다.

약 5년 전에 교회 옆에 한 오래된 건물에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벽은 금이 가고 마루 바닥에 구멍이 나고 지붕도 새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나뿐인 조명도 한지 바른 격자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여기서 매일 한 명 또는 어쩌다 두 명의 선생님이 배움에 목마른 20내지 30명의 남자아이들을 가르쳤다.<sup>17)</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기사는 1909년에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서 “약 5년전”이란 1904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오랜 동안 청남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헌신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여 오던 최창남도 본 학교 沿革誌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학교 설립 연도가 1904년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연혁지의 학교 설립 일자가 1903년 4월 1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1903년 4월 1일이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1903년 4월 1일’의 기록을 ‘1904년 11월 1일’로 수정하여 바로 잡아 놓고 있다.<sup>18)</sup>

물론 이 단계에서는 아직 등록이나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시작 단계를 어디에 두고 기점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 그 설립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의 구성요소인 교사와 학생과 건물,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여러 기록과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1904년으로 봄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다음, 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제일 교회 청년인 방홍근, 김태희, 김원배 등에 의해서 廣南學校가 설립되었다. 당시 양봉으로 비교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던 방홍근은 제1차 한일협약, 러일전쟁 등으로 일본의 침탈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던 당시, 김태희 김원배 등 우국지사들과 함께 구국의 길은 교육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방홍근은 자신의 사저를 학교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대표적인 학교장은 김태희가 맡아 학교를 운영하여 나갔다.

처음 설립당시 15명의 학생이 모였으며 이들을 두 개 반으로 나누어 2개의 방(교실)에서 교육하였다. 교회 및 서양 선교사의 청주 활동으로 새로운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서당에서 유교 경전 중심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이 새 학문과 개화사상을 지향하는 근대적인 학교에 찾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1904년 제일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한 졸업대장을 보면, 졸업생은 2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7명은 1907년에, 13명은 1909년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20

17)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1998. 「에드윈 케긴 보고서」 『충북노회사료집』, 101.

18) 이 연혁지가 학교 개교부터 1970년 4월 1일의 기사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의 잘못된 부분이 최창남 선생의 열람에 의해 수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창남 선생은 1970년 이후에서 생을 마친 1980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바로 잡은 것이라 추측된다.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1907년의 졸업생은 '고등과', 1909년의 졸업생 '보통과'로 표기하여, 다 같이 제1회 졸업생으로 처리하고 있다.<sup>19)</sup>

이것을 보면, 제1회 때부터 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두 개의 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였는지 아니면 능력의 우열에 따라 고등과와 보통과 두 개 과로 나누어 운영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직 학교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일단 학생들을 모집하여 두 개의 방에 나누어 교육하되, 연령도 많고 기초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학생은 속성반으로서 고등과 반에 넣어 2년여 교육을 시킨 후, 1907년에 졸업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4년 교육 후 졸업하게 한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개설 초창기 학교 운영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다. 교육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방흥근의 재정적 후원 하에 선뜻 학교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 차츰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어 갔다. 더욱이 통감부는 1908년 8월에 「私立學校令」을 공포하고, 모든 사립학교는 설립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은 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은 민족교육의 온상지가 되어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과 신규성립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sup>20)</sup>

그 때에 청주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펴고 있던 민노아(閔老雅 : F. S. Miller) 선교사가 그들을 도와주었다.<sup>21)</sup> 당시 우국지사와 청년들은 왜경의 감시를 벗어나 회합하는 유일한 장소로 청주읍교회를 이용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밀러 선교사는 학교 운영자 및 젊은 청년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으며, 학교의 사정도 자연히 익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일찍이 서울의 경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

19) 청남학교 『졸업대장』 제1회 졸업생년에 의하면 고등과 입학생은 1907년 3월 20일에 7명, 보통과는 1909년 3월에 13명 총 2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1907년 고등과 졸업대장의 대장 번호 3번에 方興根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저택을 학교 교육장소로 제공한 학교 설립자 방흥근과 동일 인물로, 전통적인 서당 교육을 받은 그는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자 자신이 세운 학교에 입학하여 속성과로 졸업한 것이다.

20)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인 제2조에서는 7개 항목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학교의 목적·명칭·위치 ②학칙 ③대지 및 건물 평면도 ④1년간의 수지예산 ⑤유지 방법 ⑥설립자, 학교장 및 교사의 이력서 ⑦교과용 도서명 등이다. 이것은 사립학교를 억제하려는 방책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의 사립학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얻을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孫仁銖, 1971. 『韓國近代教育史』 (연세대 출판부), 56~58).

2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1892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 1893년에는 서울 倣信學校 3대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학교 이름을 민노아 학당이라 하였는데,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고 한다. 1897년에 민노아 학당이 폐지되자 1905년 부인과 3자녀를 데리고 청주에 와서 현재의 청주제일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펴는 한편 교육사업에도 크게 활약하였다.

지고 있던 민노아 선교사는 교회 청년들이 건전한 뜻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우며 협력하여 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1908년, 평소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있던 민노아 선교사는 선교부의 후원을 받아 보부상 조합으로부터 기와집으로 된 학교건물을 매입하여 학교 운영권을 인수받았다. 이 당시의 상황을 선교사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약 5년 전에 교회 옆에 한 오래된 건물에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벽은 금이 가고 마루 바닥에 구멍이 나고 지붕도 새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나뿐인 조명도 한지 바른 격자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여기서 매일 한 명 또는 어쩌다 두 명의 선생님이 배움에 목마른 20내지 30명의 남자아이들을 가르쳤다.

작년에 마을에서 건물 한 채를 구입하였는데, 200달러를 지불하였고 교회에서 50달러를 보탤다. 흙벽이지만 4개의 방이 있고 높은 건물에 유리창문이어서 빛도 잘 들어온다.<sup>22)</sup>

이 기사는 1909년에 작성한 것으로 여기서 “작년”은 1908년을 의미하고 있다. 처음 교실로 사용하던 방흥근 집은 낡아 벽에 금이 가고 마루 바닥과 지붕도 남루해지는 등, 교육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처하였기에 때문에, 200달러의 선교부 후원과 50달러의 교회의 헌금으로 1908년 4개의 교실을 갖춘 커다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동년(1908)에 구 한국 학부대신으로부터 정식으로 사립학교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다. 학교 이름을 淸南學校로 개명하고 장로교회인 청주읍교회에서 인수하고 민노아 선교사가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청남학교는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청주지역 민족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청남학교가 구한국 학부대신으로부터 쉽게 설립허가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관계하는 학교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선교사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청주 선교부의 책임자로 와 있던 桂君(Edwin Kagin) 선교사의 보고문에

목사가 도지사를 방문하여 우리 학교에 대한 보고를 조속히 정부의 學部에 전달하여 인가를 받게 해 달라고 촉구했을 때 학교 일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 지혜를 짜내어 도지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도지사는 한국 예절과 경어를 모르는 점을 너그럽게

22)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1998. 앞 책, 「에드윈케긴 보고서」, 101.

보아 넘기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목사는 면담 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sup>23)</sup>

라고 하여 민노아 목사가 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인가를 촉구한 사실과 민노아 목사의 요청에 대한 도지사의 호의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통감부 시대에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여 사립학교를 철저히 탄압하면서도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는 온건한 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병합을 앞두고 구태여 외국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는 底意와 반일 세력의 힘을 분열시키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종교계 사립학교로서 정식 인가도 얻고, 또한 종래 2개밖에 없던 교실을 4개로 확대하여 학교 면모를 갖춘 청남학교는 1909년에 정식으로 보통과와 고등과를 설치하여 교육하였다.<sup>24)</sup>

1910년에는 이미 1907년부터 부임하여 민노아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업을 펼치고 있던 桂君 목사가 교장직을 맡고 민노아 선교사는 농촌지역 복음사업에 나섰다. 1920년에는 계군 목사가 건강문제로 선교사직을 임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자 그 뒤를 이어 蘇悅道(T.S Soltou) 목사가 그 후임으로써 교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에 있어서, 민노아 계군 소열도 등 선교사들이 교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이것은 형식상이었고 실제로는 한국인 교사가 교감직을 맡아 실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감직은 김태희, 최창남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교육의 방향은 한결같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이었다.

일제시대에는 교육이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공립 보통학교에 입학하기가 어려웠다. 입학시험을 치르고 월사금도 내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녀들은 입학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공립학교는 그 수가 적었으므로 일제가 경영하던 공립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사립학교나 야학 또는 사설강습소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관계하고 있던 청남학교는 지역민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몇 개 더 있었다. 청주지역 초기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의료<sup>25)</sup>를 중요한 포교수단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결과 몇

23)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1998. 앞 책, 106.

24)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上, 京忠代理會 教育條, 197. "(1909년) 청주읍교회에 경영하는 여학교는 淸信學校로, 남학교는 淸南學校로 허가를 受하고, 청남학교에서는 高等 普通 兩科를 教授하니라".

25) 1808년 의사 퍼비언스(W.C. Purviance ; 釜班瑞)부부가 청주에 도착하여 음으로써 의료 활동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던컨(J.P. Duncan)부인의 병원건축비 송금을 계기로 1910년, 병원 건물이 이 착공되어 1912년 진료실과 수술실을 갖춘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그것이 청주 최초의 서양 의료 기관인 蘇民病院이다. 그러나 이 병원은 탐동 일신여고가 자리하고 있는

개의 교회에 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학교로서 청남학교 외에 묵방교회에 청북학교, 청천교회에 청동학교, 신대교회에 청서학교, 여학교로서 청주읍교회에 청신학교 등이 설립되어 농촌사회를 계몽하는데 앞장섰다.<sup>26)</sup>

청남학교는 1921년에 학제가 바뀌어 4년제에서 6년제가 되었고,<sup>27)</sup> 1923년에는 여자 학교인 청신학교와 합쳐 남녀 공학의 학교가 되었으며 1924년에는 망선루로 교사를 이전하는 등 그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청남학교의 입학생의 수는 일정하지가 않으나 대개 매년 약 20여명씩 입학하여 100명 내외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었고, 교사는 3~4명이 모든 학생들을 담당하였다.<sup>28)</sup>

1925년의 보고에 의하면, 남녀 교사 4인에 남녀 학생 120명이 재학하고 있었으며<sup>29)</sup> 1930년도 관의 통계를 보면 남녀 학생 95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표1>과 같다.

<표 1> 사립학교의 상황(1930년 5월말 현재)<sup>30)</sup>

학 교 명	소재지	수업연한	학급수	교원수	아동수		
					남	여	계
대성보통학교	청주면	6	3	3	162	-	162
청남학교	청주면	6	3	3	51	44	95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어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병원까지 올라오기가 불편하였기에 1918년 청주읍교회 옆에 진료 및 시약소를 차리고 이 건물은 주로 입원실로 사용하였다. 초기 선 교사들은 된 이와 같은 의료사업을 펼쳐 지역민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근대 문화 소개에 헌신 봉사하였던 것이다. 이 병원 건물은 현재 일신여 중·고 교내에 있는 양관의 하나로, “충북 유형문화재 제1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26) 이들 학교는 1909년에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언제까지 존속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학교와 청서학교는 농촌에 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곤란으로 대체로 1910년대에 사라지고 대신 사숙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며, 청신학교는 1923년에 청남학교와 합병되었고, 묵방교회에서 운영하는 청북교회는 1927년까지 그 활동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괴산교회에 郭信學校가 있었다.

27) 그러므로 1921년과 1922년 2년 동안은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였다.

28) 그러나 졸업대장을 보면, 6년 수학중에 많이 중퇴하고 끝까지 졸업하는 자는 입학자의 반수도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하였기 때문에 가정형편상 중도에서 많은 학교를 그만 둔 것이라 생각된다.

2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4회 회록』, 58(『충북노회사료집』의 202에 所收). “청남학교는 신축한 교실에서 남녀 교원 4인 남녀 학생 120명이며 재정이 곤란하여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基督申報』 1927년 11월 2일자에는 “청남학교 교원 4인, 학생 80명(경제적으로 심히 곤란하나 교원들의 열성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함)”이라 하여 1927년에 80명의 학생이 재학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0) 1930. 『昭和 五年 忠清北道要覽』, 81.

이 통계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아동수’에 관한 부분이다. 대성보통학교에는 여학생이 보이지 않으나 청남학교는 전체 95명 학생 중 여학생이 44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만큼 청남학교가 이 지역 여성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라 하겠다. 이 당시 기독교에서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타파하여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의 정당한 지위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청남학교를 운영하던 청주읍교회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1920년대에 이미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의 조직이 그것이고, 여기에서는 각종 토론회와 야학을 개최하여 여성계몽에 나서고 있었다.<sup>31)</sup> 이러한 교회의 활동분위기

<표 2> 청남학교 졸업상황표(1907~1945)

회수	졸업년월일	졸업생		계	회수	졸업년월일	졸업생		계
		남	여				남	여	
1	1907.3.20	7	·	20	19	1929.3.20	5	1	6
	1909.3.20	13							
2	1910.3.20	11	1	12	20	1930.3.20	2	1	3
3	1911.3.20	11	2	13	21	1931.3.20	7	2	9
4	1912.3.20	3	·	3	22	1932.3.20	6	2	8
5	1913.3.20	3	·	3	23	1933.3.20	6	1	7
6	1914.3.20	2	·	2	24	1934.3.20	8	2	10
7	1915.3.20	5	·	5	25	1935.3.20	4	1	5
8	1916.3.20	3	·	3	26	1936.3.20	10	4	14
9	1917.3.20	5	1	6	27	1937.3.20	8	1	9
10	1918.3.20	9	1	10	28	1938.3.20	19	4	23
11	1919.3.20	4	3	7	29	1939.3.20	36	10	46
12	1920.3.20	3	·	3	30	1940.3.20	29	8	37
13	1921.3.20	12	2	14	31	1941.3.20	22	4	26
14	1924.3.20	4	·	4	32	1942.3.20	27	7	34
15	1925.3.20	5	2	7	33	1943.3.20	16	4	20
16	1926.3.20	5	1	6	34	1944.3.20	40	7	47
17	1927.3.20	2	·	2	35	1945.3.20	32	17	49
18	1928.3.20	3	3	6	36	1946. 7.4	27	12	39

31) 『基督申報』 1927년 11월 2일자에 의하면, 1927년에 청주읍교회에 남녀 청년회가 각각 조직되었는데, 이 때 남자는 그 회원이 20명, 여자는 그 회원이 40명이었다고 한다. 『기독신보』 1928년 10월 24일자에 의하면,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는 청주기독교청년회와 함께 청남학교에서 청주야학회를 여는 등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

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이 청남학교는 그 이전에도 소수의 여성들이 재학하고 있었으나 1909년에 세워진 여성만의 교육기관인 청신여학교를 1923년에 합병한 이후 많은 여학생이 재학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여학생들은 어느 정도 졸업하였을까? 청남학교의 졸업대장에 기초하여 졸업상황을 표로 만들어 보면 <표2>와 같다.

이 졸업생 상황표에 의하면, 입학은 많으나 졸업생은 얼마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여성이란 가사를 돕는 일과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자연 중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성교육의 확대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도 가능하여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사회 통념을 타파하였다는 것보다도 여성교육, 그리고 여성들의 활동 그 자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동시에 여성근대화라는 애국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 2. 望仙樓의 移轉과 教育의 活性化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공간이 필요한 일이다. 처음 방홍근의 사저에서 시작한 청남학교는 1908년에 청주교회 내에 새로 교사를 신축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sup>32)</sup> 1923년에는 망선루가 이곳에 새로이 복원되고 그 이듬해 곧 1924년에 청남학교의 건물로 사용되어, 1938년 현재의 청주시 영운동 청남초등학교 자리로 옮기기 전까지 망선루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이 망선루는 현재 옛 청남학교의 자리인 청주시 남문로 1가 청주제일교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 깊은 문화재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망선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의외로 소홀한 편이었으며 시민들로부터 크게 외면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5년 전부터 망선루에 대한 복원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sup>33)</sup> 특히

32) 이 校舍는 60여 평 남짓한 단층 목조건물로 벽은 백회로 발랐으며 지붕은 함석으로 덮은 아담한 건물이었다.

33) 그 동안 이 망선루에 대해서는 『청주시지』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망선루에 대한 복원문제와 함께, 이덕주, 1997.10. 앞 글 ; 이쾌재, 1998. 「충청지역의 교회발자취」, 『충북노회사료집』 ; 유네스코 충청북도 협의회, 1997.6.23. 『내고장 문화유산의

1997년, 유네스코 충청북도 협의회(회장 오세탁)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6월 27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내 고장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망선루 복원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충북대의 김경표 교수는 “청주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고 할 때, 이 모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물이 망선루라 하겠다. 망선루는 역사적인 고 건축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근대 초기 청주의 근대식 교육의 산실이었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교육사적인 차원에서 망선루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이것은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망선루가 소개하고 있는 청주 제일교회에서도 수 년째 망선루의 복원을 당국에 호소하여 왔다. 교회 신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 망선루 때문에 공간 배치가 어렵다는 면도 있겠지만, 이 귀중한 문화재가 노후하여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에서 수리와 보존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어,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이 망선루는 어떻게 하여 이 곳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근대교육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망선루 옆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 설명문만으로는 그것을 쉽게 추측해 낼 수 없다. 여기에 안내판설명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주 망선루(望仙樓)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10호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남문로 1가

이 건물은 고려시대 청주 관아의 하나로 객관 동쪽에 있어 취경루(聚景樓)라 하였다.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환경하다가 청주에서 기념으로 과거시험을 치르고 방(榜)을 이곳에 써 붙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퇴락했던 건물을 조선 세조 7년(1461)에 목사(牧使) 이백상(李伯常)이 중수하고 한명회(韓明澮)가 편액을 망선루라 하였다. 그 후 목사 이섬(李暹)이 또 중수하는 등 근세에 이르도록 유지하다가 1923년에 현재의 위치에 이 건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2층 목조 팔작 누각 형식인데 현재는 1층 부분이 원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으나 이 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

다음의 설명문에는 고려와 조선시대까지의 내용만 서술되어 있고, 일제시대의 사실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저 “1923년에 현재의 위치에 移建되었다”라는 말밖에는 더 이

---

현황과 과제 -문화유산기념세미나 자료집- 등에서 망선루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과 당국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상 어떤 설명도 없어, 이 건물이 어떻게 하여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찾아보기 힘들다.

망선루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 건물은 주지하다시피 원래 고려 때 세워진 관아의 건물로, 청주 客館의 동쪽에 위치한 누각이며 옛 이름은 聚景樓였다. 옆에 맑은 연못이 있고 사방이 훤히 트였다고 하니<sup>34)</sup> 이러한 곳에 세워진 2층 누각은 주변의 정취가 수려하게 보였으리라 상상이 되며, 그렇기에 취경루란 이름이 붙여졌으리라 짐작이 간다.

14세기 후반, 공민왕은 홍건적의 난으로 안동까지 피난 갔다가 홍건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던 길에, 이 곳 청주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1361년(공민왕 10년) 청주에서 文科와 監試를 치루고 방(榜)을 이 취경루에 내 걸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후 조선시대 1461년 목사 李伯常이 중수했을 때 이 지역 출신 세도가인 韓明澮가 누각의 편액을 고쳐 望仙樓라 하였으며, 그후 李暹(이섬)이 중수하였고 다시 牧使 李修得이 보수한 바 있는 2층 누각이었다.<sup>35)</sup>

그런데 일제 시대 성안에 도청이 들어서면서 성벽과 그 안에 있던 여러 건물이 헐리고 대신 일본식 건물이 들어섰다. 1921년, 현 도청 서문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도로 확장공사와 일본 경찰서내 일본인의 검도와 유도를 연마하는 武德殿 신축으로 역사적인 망선루가 헐리게 되었다. 그 당시 망선루는 청주 여자공립 보통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건물이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당시 청주 청년회 회장이요, 교회 장로인 김태회는 우리 문화 유산인 망선루가 일본인의 손에 의해 그냥 그대로 헐리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목격하고 이 건물을 옮겨 민족문화 유산을 잘 보존함과 동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방안을 세웠다. 그는 金種元 · 金正賢 · 李鎬宰 등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교회 청년들은 망선루를 살리기로 결심하였다.<sup>36)</sup>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대금은 유지들이 조달하고 그 이전 작업은 청년회가 책임을 지며 그 건물은 교회구내에 복원하고 동시에 학교 건물로서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전 장소와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일단 인수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망선루의 철거가 임박하였기 때문이었다. 청주 청년회에서는 이 민족문화의 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뜻이 있는 시내 청년들과 일반 유지들에게 모금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고적 보존을 명분으로 하여 충청북도경찰국으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2천원에 망선루를 인수하고 조심스럽게 건물을 철거하였다. 헐린 건물에서 나온 목재며 기와들을 모아 옆 골목 공터에 쌓아 두었다.

34) 『新增東國輿地勝覽』 15권, 청주목.

35) 위 책.

36) 이덕주, 1997.10. 앞 글, 265.

일단 인수는 말았으나 이전 장소와 복원 건축비가 마련되지 않아 2년간이나 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자재들은 공터에 방치되고 말았다. 그 사이에 보관된 일부 목재는 인근 사람들에 의해 땔감으로 이용되어 망실되기도 하고 남아 있는 목재도 그 기둥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김태희 회장은 청년회원들과 함께 복원 문제에 대해서 청주읍교회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섰다. 그 내용은 방 한 칸은 청년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남학교 교실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청주읍교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교회는 민족 문화 보존과 교육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또한 많은 청년회의 회원 가운데 그 교회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 당시 김태희 회장은 청남학교 학감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었고, 때마침 청남학교는 청신여학교를 합병하여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선교부 및 교회와의 교섭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마침내 교회로부터 동의를 얻고, 장소가 물색되었다. 교회 내 청남학교 운동장 북편에 있는 복숭아밭이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그곳에 망선루를 복원하여 그 건물을 학교 교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거액의 복원건축비를 마련하는 재정적인 문제이었다. 총 공사비 1천 7백 만원 정도의 거액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청주 청년회(회장 김태희 장로)에서는 망선루 이전 장소와 복원 건축비가 마련되지 않아 2년간이나 방치하여 두니 일부 기둥이 썩기 시작함으로 교회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협의 사항은 방 한 칸은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신여학교가 통합되어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청남학교에서 사용토록 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소열도 선교사 및 함(태영)목사와 상의하여 총 이전 건축비 일천칠백만 원 중 칠 백만 원은 소열도 목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5백만 원은 모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부족액은 함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모금하여 오도록 협의 하였습니다. 함 목사님은 서울서 모금 활동을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망선루 이전 공사할 때에 재목을 운반하는데 마차를 연결시키고 소 두 마리가 끌도록 하였는데, 재목을 운반하는 데에만도 수일이 걸렸습니다.<sup>37)</sup>

라고 그 당시의 기억을 생생히 증언하였다. 이 증언에 의하면, 소열도 선교사와 협의하여 총 공사비 1천 7백 만원 중 7백 만원은 선교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5백 만원은 모금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함태영 목사가 서울에 가서 모금해 오도록 하였다. 이 당

37) 1998년 1월 14일. 박종헌 증언.

시 봉급 생활자 한달 급여가 10원에서 20원이었는데 청년회원들은 1인당 150원씩 내어 모금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의가 대단하였으며,<sup>38)</sup> 이 민족문화보존 운동에 교인·학생·시민들이 열렬히 후원하고 참여하여 마침내 1923년 복원 공사가 추진되었다. 이 당시 벌였던 망선루 복원을 통한 민족문화 보존운동은 청주의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벌인 중요한 시민운동이며, 나라 잃은 민중이 벌인 자발적이고도 합법적인 애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겠다.<sup>39)</sup>

이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회청년, 청남학교 학생, 교인들이 자재를 학교 구내로 옮겨 날랐다. 운반거리는 약 700~800m인데, 기와, 석가래, 기둥, 자갈, 큰 돌 등을 마차에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는 손수 운반하기도 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때 마차를 연결하여 목재를 그득 싣고 소 두 마리로 끌도록 하였는데, 목재를 운반하는 데에만도 수일이 걸렸다고 한다.

복원 건축은 도목수인 덕촌교회 임호연<sup>40)</sup>의 주관 하에 경상도 사람 최목수 등이 맡아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건축 자재가 그 때 그때 공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철거되어 방치 된지 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재들이 없어졌고 남아 있는 기둥도 일부가 부식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총 공사를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던 김태희 장로는 시내 ‘仁川木材商’에 의뢰하여 신의주에서 목재를 주문하여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자금도 부족하고 그 자재도 그렇게 여의치 못하였다. 그래서 원 자재의 썩은 부분은 잘라 내고 새로 가져온 목재를 잇대어서 기둥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재 망선루 기둥이 대체로 많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복원 공사가 진행될 때 청남학교 학생들은 방과후에 노력 봉사활동에 나섰다. 민족문화 보존이라는 차원과 자신들이 사용할 교실을 짓는 일에 손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 교실 신축공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복숭아나무를 베어 내고 동서 길이로 망선루를 세웠다. 주춧돌 세울 장소를 목수가 치수를 재어 표시하자 인부들이 안에 들어가 넓이 1m, 길이 1.5m 정도로 파놓았다. 그러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달려들어 여기에 굵은 돌과 잔돌을 갖다 부어 넣었다. 그리고 비계나무를 차려 놓고 큰돌에 밧줄을 걸어서 비계목에 달아 놓은 도르래에 걸고, 그 줄에 여러 갈래의 잔줄을 붙여 놓는다. 우리 학생들이 잔줄을 잡으며 사방으로 고루 퍼져 서 있으면, 선소리 매기는 사람이 들어서서 다지는 큰돌의 방향을 잡으며 선소리를 매긴다. 선소리꾼이 “어이어 젓차-하!” 하면, 잔줄

38) 이쾌재, 1998. 앞 글, 430.

39) 위 글.

40) 그는 그 후 1927년에 덕촌교회 장로로 장립되었다.

을 사방에서 잡은 우리들은 “지게미호” 하고 줄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큰 돌은 공중으로 따라 올라 갔다가 줄을 일제히 놓는 바람에 그 돌은 곧 바로 아래 구덩이 안으로 내려 떨어지면서 깔아 놓는 돌을 다져 준다. 이렇게 다져서 잔돌이 밑으로 들어가면 또 돌을 넣고 다지는데, 일정한 한도에 다다르도록 다져 놓는다. 무려 20여 개 구덩이를 여러 날에 걸쳐 오후부터 저녁 9시까지 다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기와 옮길 때 손 다친 학생, 구덩이를 다지는데 손바닥이 부르튼 학생들이 많았다.<sup>41)</sup>

고 한 것을 보면 이 공사는 단순히 공사 인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초석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침내 1923년 상량식이 이루어졌다. 그때에 金泰熙, 李東鉉, 李明求, 鄭圭澤, 金喆煥, 朴敬學, 金澤 및 청년회원 및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이 거행되었다.<sup>42)</sup>

복원된 망선루는 길이 64자, 폭 28자, 정면 5칸, 측면 3칸 총 15칸에 약 50여평 면적을 차지한 2층 건물이다. 이 망선루는 본래 위층 아래층이 특 트인 2층 누각이었으나 이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실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1, 2층의 사면 공간을 벽돌로 막고 창문을 내었다. 그리고 목재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외견상으로는 조선식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부 구조는 2층 양옥집과 별다름이 없게 되었다.

마침내 1924년 전교가 이 망선루로 이사하여 온전한 학교 건물로 사용하였다. 아래 층 중앙에 교무실을 두고 양쪽 동서로 교실을 배치하였으며, 2층에 3개 교실을 마련하였다. 이곳으로 모든 시설을 옮김으로서 학교 면모를 일신하였다. 다만 청년회의실은 아래 층 북편으로 별도로 입구를 내어 사용하였다. 이곳은 당시 유일한 청주 남녀 공학의 사립 초등학교로서, 근대적인 초등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이리하여 청남학교는 민족의식 고양과 사회계몽을 도모함으로써 일제기 근대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주지역의 계몽과 구국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 청남학교와 망선루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내었다. 남녀 졸업생들 가운데에는 후일 목사나 장로가 되어 한국 기독교에 많은 공을 쌓은 인사들이 나왔음은 물론,<sup>43)</sup>

41) 이창수, 앞 책, 19~20.

42) 李昌秀, 앞 책, 20 ; 可東 李明求, 1971. 『自敘傳』(常綠出版社), 56.에 “이 望仙樓 拂下移轉 改築事實을 후일 기념하기 위하여 改築上樑時에 대들보 속에 不肖外 金泰熙, 金喆煥, 鄭圭澤, 李東鉉 氏 等 11명의 寄附人 명단을 상량문과 同封藏置하여 두었다.”라 서술하고 있다. 그 글귀에 의지하여, 1999년 4월 25일 필자가 망선루 2층 중앙 대들보가 있는 천정에 올라가 손전등을 비추어 가면서 기록문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

43) 청남학교 개교 이후 신사참배문제로 1936년 10월 휴교될 때까지 청남학교 출신 중 목사가 된 사람은 玄聖元(감리교), 裴敏洙(장로교), 鄭箕煥(장로교), 嚴庚述(장로교), 全用燮(장로교), 朴鍾烈(장로교), 李鍾完(장로교), 宋仁求(성결교), 洪正欽(장로교) 등이 있으며, 대부분 세상을

교사와 교장으로서는 교육계에서, 의약계에서, 군수 및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적십자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육상선수 야구선수 등 체육계에서, 그리고 財界와 實業界에서 크게 활약하기도 하면서, 초등학교시절 몸에 익힌 기독교 정신과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또한 그후 많은 교육기관이 이곳을 이용하였으니 이 건물은 충북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청남학교는 물론 청신여학교, 청주성경학원, 세광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신고등공민학교, 상당유치원 등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한때 YMCA회관, YWCA회관으로도 사용되었으며, 각종 집회와 강연 장소로 활용되는 등, 실로 이곳은 충북 교육·문화의 요람지이기도 하다.<sup>44)</sup>

### 3. 教育의 展開와 民族意識

당시 사회상과 시대적 특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교육과정의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음의 학적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修身, 國語, 朝鮮語, 算術, 歷史, 地理, 理科, 職業, 圖畫, 唱歌, 體操, 手工·家事·裁縫 등이었다.<sup>45)</sup> 1~2학년에서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도화, 창가, 체조, 수공·가사·재봉 등을 배우고 3~4학년부턴 이과를, 5~6년에서 역사와 지리를 이수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 과목은 공립보통학교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수업 시수나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달랐다. 학생들의 한 주간의 생활을 보여주는 시간표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어」(국어)와 「조선어」 시수에 관한 것이다.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주당 「일본어」 10시간 「조선어 및 한문」 6시간으로 「일본어」가 일주일 전체 수업시수(23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었다.<sup>46)</sup> 1920년도의 청남학교 시간표에 의하면 「일본어」 시간은 주당 7시간이고 「조선어」 시간은 주당 5시간으로 되어 있어, 공립학교보다 많은 시간을 조선어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 더욱이 일제 운영의 공립학교의 경우, 그것도 「조선어」를 「조선어 및 한문」이라 하여 교과목에서 한국어와 한문을 함께 놓아, 조

떠났고, 1999년 현재 생존자는 박종렬, 이종완 2명뿐이다. 특히 청남학교 출신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제69회 총회장(1984. 9.~1985. 9.)을 역임한 박종렬 목사는 1936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야기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해 주었다.

44) 현재는 청주제일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45) 이 과목은 1925년 졸업생의 학적부에 의한 것이다. 이 학적부에 의하면 1922년까지는 100점 만점을, 그 이후에는 10단계 평정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학적부는 “長春紙物商會”에서 인쇄한 것인데 이 회사는 청주읍교회의 유운혁이 운영하던 회사였다.

46) 鄭在哲, 1985. 『日帝의對韓國殖民地教育政策史』(일지사), 311과 362~363에서 1922~38년까지의 예를 보면, 보통학교 2학년의 경우, 조선어 3시간, 일본어 12시간으로 조선어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考 備	第六學年	第五學年	第四學年	第三學年	第二學年	第一學年	學 年	學 業 成 績	月生日年	名 姓 童 兒									
	× × × × ×	7	9	8	80	80	89		身 修	× × 年 × 月 × 日	×	×	×	×	×	×			
8		8	7	80	70	81	語 國												
8		9	8	90	80	79	語 鮮朝												
8		8	8	80	80	80	術 算												
9		8					史 歷本日												
8		8					理 地												
9		8	7	70			科 理												
9		8	7	80	70	80	畫 圖												
7		8	10	80	75	75	歌 唱												
8		9	8	80	80	73	操 體												
							縫 裁												
			8	70			蠶 農												
甲		乙	乙	甲	甲	甲	行 操	年 修了ノ 月 日	大 正	大 正十四年 參月二十日	大 正	六	年	四 月 一 日	× × 郡 × × 而 × 里 × 番 地				
三 大 月 正 二 十 四 日 年		三 大 月 正 二 十 三 日 年	三 大 月 正 二 十 九 日 年	三 大 月 正 二 十 日 年	三 大 月 正 二 十 日 年	三 大 月 正 二 十 日 年	三 大 月 正 二 十 日 年												
二 四 四		二 三 八	二 三 〇				數 日 度 出	出 在 席 缺 中 席 ノ	年 月 日	者 護 保	業 職	所 住	名 氏	×	×	×			
		一	二				氣 病 故 事										日 欠 數 席	發 育	養 營 柱 脊
							長 身 重 體	發 育	養 營 柱 脊	左 右	態 屈 視 折 力 狀 及	神 色	疾 眼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圍 胸 評 概	發 育	養 營 柱 脊	左 右	態 屈 視 折 力 狀 及	神 色	疾 眼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養 營 柱 脊	左 右	態 屈 視 折 力 狀 及	神 色	疾 眼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左 右	態 屈 視 折 力 狀 及	神 色	疾 眼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神 色	疾 眼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疾 眼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力 聽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疾 耳 牙 齒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實 疾 其 狀 病 他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否 要 ノ 察 監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注 意 對 ス ル 本 人 ニ												

學 籍 簿

선어보다 한문에 수업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는 조선어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청남학교는 많은 시간을 우리말 교육에 할애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나가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의 시간표<sup>47)</sup>

土	金	木	水	火	月	日	曜 時
修身	漢文	算術	漢文	國語	漢文	祈禱	前午九
漢文	書取	漢文	算術	鮮魚	國語		十
算術	國語	作文	國語	漢文	算術		十一
國語	國書	復習	遊戲	文理	作文		十二
唱歌	鮮語	讀書	作文	算術	諺文	讚頌	後午二
書國式語	算術	習字	修身	習字	修身	聖書	三
休息	讀書	諺國文語	習字	讀書	文理		四
말외 쓰을	作文	圖畫	鮮語	作算 文術	讀書		五

또한 1920년의 시간표에 의하면, 한문시간은 6시간으로 비교적 많이 할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아직도 청주지역에 서당의 세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역사와 지리의 경우를 보자. 「역사」와 「지리」과목은 고학년에 설정하였는데 공립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한국의 역사는 왜곡하고 일본의 역사와 지리를 교수하여 한국인 청소년에게 일본인 의식을 주입하였다.<sup>48)</sup> 그러나 청남학교는 역사시간은 물론 조선어 시간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나갔던 것이다. 한국역사가 일제 교육에 의하여 왜곡되어 가던 그 때에, 한국역사를 바로 잡고 동시에 민족혼을

47) 全宗燮 提供.

48) 鄭在哲, 1985. 앞 책, 364.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이 시간에는 고대 일본이 야만민족이었으나 백제의 문화가 전래 되어 일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든지, 특히 백제로부터 천자문과 논어가 전해져 일본에 문자가 사용되고 비로소 학문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당시 한국이 그들의 침략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한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국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역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잔다르크나 죠지 워싱턴의 이야기, 그리고 국내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종대왕의 업적,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에 관한 업적들이 크게 부각되었다. 과거 한국의 역사적 인물의 활동을 통하여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국권회복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삼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나는 고향 문(文義)에서 1년간 공립 보통학교를 다닐 때 6년 이상 10년 차이의 학생들과 같은 반으로 다녔다. 가덕 향정(香亭)의 신약호·신석호씨, 화당의 정택영 등과 1년을 다니면서 애국사상이니 독립운동이니 왜놈이니 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청남학교 3학년이 들어오니 학생들이 애국을 말하고 독립운동을 말하고, 상해 임시 정부를 말하여 나오서는 처음 듣는 말뿐이었다. 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촌놈이라는 듯이 대하는 것 같다. 기영이<sup>49)</sup>와 나를 제하고는 4~5년에서 10년 이상의 연배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어른스러웠다.<sup>50)</sup>

구약에 예급에서 노예생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모세의 사기와 신약에 이스라엘 전 국토가 로마에 예속되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록들을 읽을 때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입장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이호재 이창재 선생님께서 고조선시대부터 조선과 구한말의 역사를 간간히 들려주었다. 그리고 합병된 후의 독립운동과 각처의 의병 봉기와 만주 별판의 군관학교 조달, 고종황제의 헤이그 밀사 파견 등 9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 뇌에 애국 상상이 박혔으니 일생동안 뇌에서 지워질 수 있을 것인가?<sup>51)</sup>

라고 하면서 유달리 청남학교는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의식 고취는 공립학교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할 내용이었으나 청남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은근히 교육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과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것이다.

여기 시간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한 가지 사실은 토요일의 ‘외울말씀’ 시간이다.

49) 애국지사 김태희의 둘째 아들. 당시 김태희는 청남학교 교사이었음.

50) 이창수, 1998. 『회상록』 (계명사), 243.

51) 위 책, 48.

본래 청남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이었으므로 성경시간을 따로 두어 종교교육에 임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는 성경과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1915년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발표된 이후는 일제의 통제와 간섭이 심하여 성경과목이 교과목에서 사라졌다. 일제는 성경과 종교의식을 제거함으로써 기독교 자체가 가지는 저항의식을 배제하고 대신 일본의 국가주의 사상과 정서의 육성 및 태도를 양성하려는 修身科目을 통하여 그들의 神道사상을 확충 보급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남학교에서는 매일 학교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회를 가졌다. 이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 신앙의 성숙은 물론, 민족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전달하는데 일몰을 담당하였다. 그것의 결과가 토요일의 '외출 말씀'시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청남학교는 또한 찬송을 통하여 망국의 비통한 운명 속에서 싹튼 종교적 성향과 민족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중에서도 “십자가 군병들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와 같은 탄압에 인내하며 항거하거나 전투적인 내용을 가진 찬송이 애창되었다.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바탕으로 침략자인 일제를 마귀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고 어떠한 탄압에도 불굴의 정신으로 항거해야 한다는 민족정신의 표현과 고취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찬송은 일제에 대한 항거를 선동하는 것이라 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창가시간이다. 찬송가와 함께 창가가 널리 애창되었다. 이 당시 찬송가나 창가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또는 음악적으로 부르는 노래라기 보다는 일제하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의 고동이요, 망국을 슬퍼하는 겨레의 통곡이며, 자주 독립을 외치는 민족의 함성이었다. 익히 알려져 있는 윤극영의 '반달'이나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는 물론 그 외에 여러 창가 및 동요가 유행하였는데, 이 중 특히 민족의식과 항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몇 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52)</sup>

- ▶ 꽃피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손과 손을 잡고서  
봄 마중을 갈가나  
일사 일사 좋구나 절지구 좋구나
- ▶ 앞 마을 논 밭에 신작로 나더니  
갈 찬 나리 마을에 새대감 나고

52) 그 당시 유행하던 창가와 동요는 민족혼의 발로인 항일 창가였기에 자연 단속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 인멸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찾기 어려우나, 이 노래는 1930년대 초에 졸업한 전종섭, 신관우씨 등 생존자들로부터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것이다.

통통 고개 십리고개 자동차 넘더니  
김서방 이서방 북간도 가네

등이 널리 유행하였다. 전자는 민족의식, 단결, 진취적 기상 등을 고취하는 노래이고, 후자는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수난의 실상을 표현하고 그 분개를 풍자하여 항일의식을 불러일으킨 노래이다.

또한 애국 계몽에 관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학교에서는 각 교과를 통하여 정직과 성실, 근검 절약, 그리고 생활의 자립화를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禁酒·斷煙 운동이었다.

오늘날도 한국 개신교가 금기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금주·단연은 직접 성서의 교훈이나 내용의 문제를 떠나 청교도적인 금욕적 생활이 첨가되어 실생활 면에 크게 작용하였다. 금주·단연의 이유는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종교 행위에 근거한 것 이라기보다는 경제적·도덕적 배경과 새 시대, 새 역사의 사명감이라는 이유가 훨씬 많이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생활 신조가 기독교의 절대적 조건처럼 작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정신 곧 근검 절약의 생활태도를 낳게 하였다.<sup>53)</sup> 청남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금주·단연 운동에 참여하여 시내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애국 계몽 운동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학생들은 금주·단연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치품 추방과 저축장려운동으로까지 확대하여 나갔다.

청남학교의 이러한 민족의식의 배양은 다름 아닌 청남학교 교사들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청남학교의 교사로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투철한 젊은 교사들이 많이 부임하였는데, 그들은 자신이 먼저 애국자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의식과 생활태도는 곧 바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때 교사들 가운데에는 학생을 모아 놓고 글 가르칠 것은 잊고 한시간 내내 비분강개한 감정을 토하고 일제의 만행을 소개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활동으로 민족교육은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다.

1936년 신사참배의 문제로 청남학교가 휴교처분을 당하기 전까지 청남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던 인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희, 광재기, 김종원, 김종진, 백광필, 신공균, 이호재, 이창제, 방윤근, 나중의, 신창균, 정규태, 장정애, 최창남, 정순경, 이복님 등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민족의식이 강한 교사들이었다.

金泰熙 선생(1881~1937)은 초창기 학교설립자로, 교내적으로는 학감으로 활동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1909년 大東靑年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3.1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 聯通制의 충북 參事로서 독립운동에 적극 활약하였으며, 청주 청년회장과 신

53) 전순동, 1994.12. 「한국의 기독교 전래와 기독교가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 『청원문화』3, 57.

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년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또한 없어질 뻔한 한 망선루를 다시 이전 복원하는 일에 주역을 담당한 인물이기도 하다.

郭在驥 선생(1893~1952)은 일찍이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귀향하여 청남학교 교사로 근무한 후 만주 길림성으로 들어가 의열단을 결성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sup>54)</sup>

金鍾元 선생은 청남학교 제1회 졸업생(졸업대장 번호 제1번)으로서 졸업 후 청남학교 교사로 11년간 근무하면서 학교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다. 청주읍교회 장로이며 청주청년회 총무 기독교청년회 총무로도 크게 활약하였다.

백광필 선생은 시인으로서 몇 청년들을 상대로 詩朗讀會를 자주 열었다.

申公均 선생은 구한국군 장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0년대 초 학교에 부임하자 한국군 장교복 차림에 긴 칼을 차고 나팔을 불면서 한국군대식 구령과 동작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후에 장로가 되었다.

이호재, 이창재 선생은 형제간의 사이로 청남학교에서 한국고대의 역사, 일제 강점기의 비통한 역사, 상해 임시정부의 상황 등을 들려주면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하였다. 이호재 선생은 후에 장로가 되었으며 동생 이창재 선생은 목사가 되었다.

방윤근 선생은 국어 선생으로서 조선어 시간에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정순경 선생은 일본 나라(奈良)여자고등사범출신으로 평양에서 교편 경력을 가진 여교사로, 음악과 가사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음악을 통하여 반일 감정과 민족의식을 부추겼다. 신사참배의 문제가 대두하였을 때에 교사 정규태와 함께 끝까지 항거하여 투옥되기도 한 인물이다.

청남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사범학교 출신의 교사도 부임하였다. 신창균, 정규태 선생이 그러하다.

申昌均 선생은 1930년 도립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공립학교로 갈 수도 있었으나 청주교회의 청년면려회장의 경력과 평소 신간회 간부들과의 교류 및 민족진영 인사들과의 접촉<sup>55)</sup>으로 민족의식이 강하게 몸에 배여 청남학교를 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창균 선생은 근무 1년만에 음성보통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고 떠났다.<sup>56)</sup>

5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7. 1963년에는 그의 공적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獨立章이 추서되었다.

55) 신창균,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

56) 신창균,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 44~46에 의하면, 신창균 선생이 1년만에 청남학교를 떠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는 사범학교

그 후임으로 1931년 사범학교 1년 후배인 정규태 선생이 부임하였다. 그는 1936년 신사참배문제로 옥고를 치르기까지 인재양성에 헌신하면서 일본의 민족말살정책 하에서도 한국문화를 보존하며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사건, 바빌론포로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로마 속국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와 신앙 등을 소개하면서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크게 자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사참배 거부로 강제 퇴직 당하고 조선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한 후 목사가 되었고 후일에 기독교장로회 총회장도 역임할 정도의 투철한 신앙인이요 민족주의자였다.

또한 아동문학가요 충북지역의 한글 학자라 할 수 있는 최창남의 활동도 특히 놀라운 일이었다. 최창남은 1923년에 부임하여 청남학교의 운명과 함께 하면서 일제의 탄압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학교를 민족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 중의 하나이다. 일제가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1930년대 초, 그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청주 東公園에 마련된 신사참배 장소에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의식 중 '사이케이레이(最敬禮)'라는 경례 구령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45도 각도로 몸을 숙여 경례를 하였지만, 청남학교 학생들만은 최창남 선생의 지시에 따라 도리어 그 구령에 맞추어 뒤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것은 우상숭배 거절이라는 기독교의 정신에 따른 행동이기도 하나 또한 조선 민족으로서 일본의 천황에게 절할 수 없다는 민족 긍지와 독립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남학교 교사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강렬한 민족의식과 새로운 가치관·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남녀 평등, 미신타파 등 근대의식을 갖게 하였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교 사찰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학교 근무에 성실히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중 대표적 인물이 1920년대 청남학교 사찰이며 청주읍교회 집사인 윤광석이다. 그는 週間에는 사찰로서 성실히 학교를 위하여 심부름

---

출신 교사에 대해서는 대우를 공립수준에 맞추어 하라는 충북도청 학무과의 지시에 따라, 그의 봉급은 첫 달부터 자신보다 더 오래 근무한 최창남 선생의 것보다 더 많았다. 학교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향력도 대단한 최창남 선생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나 교회 내에서 행동하기가 어색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은, 평소 강한 민족의식의 성향과 행동으로 교회내 친일파 교인 및 일본 경찰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점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거기에 사범학교를 나왔어도 혹 성적이 좋지 못하여 공립에 가지 못하고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세인의 통념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느끼는 상한 자존심도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는 공립학교에서의 교직생활 중에도 일경의 감시와 구속을 받아 마침내 교직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가 재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해방 후 독립운동, 통일운동, 정구 진흥에 세운 공이 인정받아 1989년 수상하였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동감리교회 장로이다.

하고 봉사하지만, 일요일에는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사업에도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특히 일요일에는 청원군 문의면의 문의교회를 개척하는데 밑알의 역할을 하였다. 주일이면 서상필 조사, 이병분 조사, 이호재 영수와 함께 번갈아 30리 길의 문의 교회에 나가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농촌의 미신타파와 근대적 합리사상을 고취하였던 것이다.

청남학교 교사들은 이처럼 자신이 먼저 투철한 애국자로서의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정신과 생활태도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교실에서 학문을 가르치기보다는 울분을 뿌려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은근히 일제에의 항거와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교육활동은 그대로 당시 이 학교의 강한 애국열로 이어졌던 것이다.

실로, 청남학교 교사들은 나라 없음을 개탄하며,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교육이고, 정치와 교육은 일체라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오로지 민족의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 4. 神社參拜 問題와 休校

神道는 일본 고유의 종교요 일본 國粹思想의 핵심이다. ‘일본이 가는 곳에 반드시 신사가 있다’고 말해지듯이 일제는 가는 곳마다 神道の 신전인 神社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자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타민족을 동화·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총칼로 위협한 것이 군대(특히 헌병대)와 경찰이었다면 정신적으로 위협한 것은 신사였다.<sup>57)</sup>

神社란 일본고유의 종교인 神道에서 출발한 것으로, 신도 사상에 의해 일정한 건물에 신령을 모셔놓고 그곳을 齋場, 敎場의 성스러운 터전으로 삼아 신앙하고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천황을 天照大神 자손인 現人神으로 설정하고 모든 덕행의 기초로 삼고, 천황은 일본 제국을 통치하는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천황숭배 사상을 보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이 신도사상을 근간으로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한일합방 직후부터 한국인에게 일본 천황의 사진에 경례하도록 강요하면서 신사 참배를 요구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교회와 선교사들은 천황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전정서를 내어 반대하여 왔으나, 이에 대하여 일제는 “신사참배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57) 神社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승태 엮음, 1991. 『韓國基督教과 神社參拜問題』(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참조.

1915년 8월 「神社 寺院의 規則」을 발표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방에 신사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5년 서울 남산에 朝鮮神宮을 준공하고 나서부터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는 더하여 갔다. 이 때 서울에 있는 기독교학교는 조선 총독부 앞으로 開陳書를 제출하여 신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됨으로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강제적 참배는 종교상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로, 이 일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처사임을 밝히면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1925년 9월에 일부 전문학교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하였고, 10월에는 선교사들간에 일본 수호신을 경배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처사라 항의하였으며, 특히 연희전문학교 기독교학생들은 신사불참배 운동을 결의하는 등 여러 형태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sup>58)</sup> 이로 인하여 일제는 전 지역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치밀한 계획 하에 협박과 설득으로 임하였다.

일제는 우선 관장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천황의 臣民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학교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으로 대륙침략을 노골화하면서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1932년 9월 평양시내 瑞氣山에서 행해진 유명한 「春季 皇靈祭」와 「滿洲出征 戰歿將兵慰靈祭」였다. 만주 출정 전몰 장병에 대한 위령제가 거행될 때 각급 학교에 학생 동원과 참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일반 학교는 크게 저항 없이 응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 학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제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관계된다고 통고하면서 제사행위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사 후에 있을 국민의례만이라도 참석하라는 협상을 내놓았다. 결국 祭儀 후의 국민의례만 참가하기로 타협하고, 崇實, 崇義 등 기독교 학교는 하는 수 없이 이 의식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조선 총독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 신사참배령을 내렸으며 이때부터 기독교와 총독부사이에 끈질긴 공방전이 전개되었다.<sup>59)</sup>

일제는 일본인에 있어서 종교적 권위를 지닌 일상적 예식이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기도 한 신사참배를 통하여 일본과 조선의 일체감을 고양함과 동시에, 한국 학생들을 臣民化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학생들을 신사마당에 동원하여 참배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사참배문제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강행되었다. 이것은 문화침략 내지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면서 적극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사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신앙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치·사회·문화·교육·사상의 문제인 것

58) 김승태 엮음, 1991.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연구소), 236~240.

59) 金良善, 1971. 『韓國基督教史研究』, 177~178.

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민지 문화 침략에 항거한 신사거부항쟁은 단순히 특정 종교적 입장에서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이것은 민족운동 내지는 민족수호를 위한 항일 운동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sup>60)</sup>

이러한 신사참배의 강요는 청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 각 지방의 신사건립의 계획에 의거하여 청주에도 1922년 東公園(대성동)에 청주신사가 설치되었다.<sup>61)</sup> 처음에는 청주에 있는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차차 관공서는 물론 공립학교교사와 학생들까지 神社 參拜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양상이 더욱 달라졌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예배행위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천황의 신민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강변하면서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인 청남학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다. 1935년에는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청남학교는 이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면서 신앙과 민족의식을 고수하여 나갔다. 어쩔 수 없이 동원되어 신사마당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청남학교 학생과 교사는 뒷전에서 관망만 하고 있을 뿐 제관이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고, ‘사이케이레이(最敬禮)’라는 경례구령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45도 각도로 몸을 숙여 경례를 하였지만 청남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꼴꼴이 서 있거나 또는 그 구령에 맞추어 뒤로 돌아서곤 하였다 한다. 이것은 우상숭배 거절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행동이기도 하나 또한 조선민족으로서 일본의 천황에게 절할 수 없다는 민족적 긍지와 독립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청남학교는 당국으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1936년 8월, 南次郎이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신사참배령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륙 침략 정책상 강력한 皇民同化 정책을 내세워 민족문화말살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일층 강요하였다. 충북지방에서는 邑警을 앞세워 청남학교를 제 일차로 지목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충북도 당국은 학교의 실무책임자인 최창남 선생을 불러 신사참배 수락을 강요하였다. 그 당시 학교 교장으로서는 소열도 목사가 있기는 하나, 그는 이미 1935년 북장로회 선교회 실행위원으로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를 선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는 등 신사참배 불참운동에 앞장서면서 대외 활동에 분주한 상태였기에, 학교 교장은 형식상이었고, 실제로의 학교책임은 최창남 학감(교감)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실무 책임자인 최창남을 설득하여 학생들을 신사참배에 참여시키려 하였다. 의식이 강한 최창남

60) 이만열, 1981.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349~353 ; 김승태 엮음, 1991.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0~191.

61) 충청북도 편찬, 1930. 『昭和五年 忠淸北道要覽』, 86~87. 이 요람에 의하면 1930년에 충북에는 15개의 神社가 있었다.

선생은 이를 거절하자 최선생을 연행하여 주야 3일간 모질게 협박하였다.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까지 인내하며 강경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사참배에 불응한 학교들이 강제 폐교되어 가고 있던 소식을 접한 최창남은 한계상황에서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부득이 참배를 수락하고 말았다.

풀려 나온 최창남은 이 신사참배 문제와 학교 존폐의 건으로 교무회의를 열었다. 교사 정규태 정순경 등은 학교운명이 걸려 있는 일이지는 하나, 학교 문이 닫히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는 불가하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최창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 문만은 닫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창남은 종교나 교육이나, 신앙이나 학교나 하는, 이 양자 택일의 현실적 갈등 기로에서, 개인적인 인격이나 신앙보다도 오직 학교와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결단한 것이었다. 학교가 없어지면 민족교육은 완전히 말살되어지고 만다는 인식 하에, 그에게는 오직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 당시의 상황 선택에 있어서 오직 학교와 학생의 입장에 서서 득점을 계산한 것이었다.

이 때에 결국 민족의식이 강하게 길들여진 청남학교 학생들은 신사참배에 불응하고 나섰다. 신사참배 반대로 당시 교사 정규태, 정순경 선생은 구속당하였으며 학교의 신사 불참배 운동에 주동을 이룬 당시 재학생 박종렬, 홍정흠, 강병찬 등도 감금을 당하였다.<sup>62)</sup> 당시 청남학교 학생으로서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다가 실제 감금을 당하였던 박종렬 목사는

당시의 피해자는 교사 중에는 정규태, 정순경 두 분이었고, 학생 중에는 당시 6학년 학생이었던 강병찬, 박만복, 박종렬 3명이었으며, 이상 5명 중 정순경 여교사는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 외 4명은 같은 유치장에 20여 일간이나 함께 갇혀 있었는데, 수일 후 제일교회 장로인 손현수씨(보은 군수 역임한 분)가 우리 방에 추가로 수감되었습니다.<sup>63)</sup>

라고 그 때의 기억을 회상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일로 교장 소열도 목사, 교사 정규태와 정순경 등은 신사참배에 불복하여 강제 퇴직 당하였고, 청남학교도 10월 12일 마침내 강제로 휴교처분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결국 학생 가운데에 강제 퇴학을 당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는데, 이 때의 학적부를 조사하여 본 결과 '퇴학 사유'의 란에 "神社參拜 不肯"이라 기재된 학생으로 朴鍾烈, 朴福萬, 姜炳讚, 李種好 등 4명의 학생이 발견되었다.

그 후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서 결국 당국에 순응하기로 하고 8일 후인 10월 20일

62) 이쾌재, 1998. 앞 책, 439~440.

63) 1999년 5월 1일. 박종렬 목사 증언.

에 다시 개교하여 학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사참배 문제로 청남학교는 침울한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때에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 맡아 민족감정을 유발하였다. 1936년 12월 24일 청주읍교회 남녀 청년회에서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성탄축하 제등행렬이 그것이다. 성탄절 전야에 북과 나팔을 앞세우고, 유년주일학교 학생, 남녀 청소년, 장년, 노년 등 800여명이 동원되어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聖誕祝賀 提燈 市街行進을 벌였다. 명분은 성탄축하행사였지만 그 동안 쌓였던 민족적 울분을 터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경은 이것이 예수를 빙자하여 일제를 반항하는 시위라 하여 이창수를 중심으로 한 주동 인물에 대하여 여러 날 문초를 하며 압력을 가하였다.<sup>64)</sup> 그 이듬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의 출애굽 상황을 연극으로 꾸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회당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 때 공연된 <이스라엘 태양 모세>라는 연극은 대 성황리에 끝마쳤으나 민족의 감정을 유발하고 반일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하여 경찰당국으로부터 또 다시 문초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반일 사상을 고취하고 답답한 민족적 감정을 풀었다는데서, 교회와 청남학교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지며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나갔던 것이다.<sup>65)</sup>

청남학교는 신사참배 불응 사건 이후, 다시 개교하였으나 교사와 선교사들이 탄압을 받아 주인 없는 학교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동년 12월 4일, 교육경력이 있고 당시 충청북도청에서 근무하던 崔東善이 학교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총회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중래에 경영하여 오던 청남학교는 형편에 의하여 최동선 씨에게 인계하고 상당 유치원은 계속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강습소와 야학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sup>66)</sup>

그러나 학교의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게 되자, 이 학교는 1938년 4월 1일 청주 제일 교회를 떠나 현재의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 운영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자 1942년 7월 1일 독지가 金龍泰가 인수하여 토지 약 2만여 평을 회사하면서 교장으로 취임하고 여기에 교사를 신축하여 배움의 터전을 이어나갔다.

그 후 일제는 말썽이 많은 사립학교를 합병하여 공립학교로 만드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淸南學校와 大成學校를 합병하여 成南國民學校라 교명을 고치고 공립학교로 만들었다. 그 학교명을 ‘大成’에서 ‘成’, ‘淸南’에서 ‘南’을 채택하여 成南國民學校

64) 이창수, 앞 책, 『회상록』, 52~54.

65) 위 책, 55~56.

66) 1937. 『충청노회 상황보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6회 회록』.

라 개칭한 것이다. 동시에 교장도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라는 일본인이 취임하고 실질적인 교장인 김용태는 부교장 격으로 내려앉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5년 8·15 해방으로 민족을 다시 되찾게 되자 9월 24일 '淸南'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되찾아 청남국민학교로 환원되었고 朴鼎植 교장이 취임하여 오늘의 청남초등학교가 되었다.

### Ⅲ. 崔昶楠의 生涯와 民族教育

#### 1. 崔昶楠의 民族意識 成長背景

최창남은 甲午更張(1894)이후 근대적인 개혁이 추진되던 1897년 음력 11월 18일 淸州郡 南州內面(지금의 남문로 1가 322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崔順五씨와 어머니 星州 李氏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나이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한 후, 11세가 되던 1907년에 淸州普通학교(현 舟城初等學校)에 입학하여 1911년에 제1회 졸업생이 되고, 이듬해 淸州농업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제2회 졸업생으로 농업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 후 1916년 20세 약관의 나이로 인근 淸州군 북일면의 면서기로 관공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첫 공무 생활이지만 성실히 근무한 관계로 인정을 받아 1918년에는 집 가까운 淸州면으로 근무지를 옮겨 면서기로 봉직하던 중, 27세에 淸南학교 교사가 되었다.

최창남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기독교에의 입교이다. 최창남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3세가 되던 1920년의 일이다. 그 때는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로,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공직에 몸담고 있던 최창남도 바로 이웃에 있는 淸州읍교회(현 제일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교인이 된 최창남은 신앙이 나날이 돈독해졌다. 그는 엄위한 유교적 전통을 지닌 가정에서 독자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 또한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달리 특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단 하나 있는 자식이 가정의 유교적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에 귀의하여 서양귀신을 따라간다 생각하고 자식의 교회 출석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와 주변사람들의 조소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 결과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교장, 청년면련회의 회장, 충청면련회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회에서의 교육과 청년활동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그가 교인이 된 후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이였으며 주변의 모범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당시 전국 규모의 유력한 기독교 신문에 기사화되어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최창남 군의 열성과 신앙 ; 군은 본래 엄위(嚴威)한 가정의 독자로서 양친의 질책과 환경의 조소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듣자 곧 자기가 잡고 있던 공직을 버리고 현 청남학교의 교원이 되어서 7·8년을 한결같은 성력(誠力)을 가지고 옴으로 가정에서는 모친이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에서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없지 못할 인물로 칭송이 자자하다.<sup>67)</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의 신앙과 열성적 태도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성경 가운데에서 특히 민족의식을 많이 발견하였다. 이스라엘의 고난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슷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최창남의 민족의식 고양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인물은 청주읍교회의 김태희 장로였다. 김태희 장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체에 항거하고, 어려운 환경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태희 장로의 생활태도는 감수성이 예민한 최창남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당시 김태희는 밖으로는 해외 독립운동과 연계되고 있었고 안으로는 청남학교 학감으로서 실제 학교교육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체의 침략과정을 몸소 체험하며 성장하여 온 최창남은 신앙심이 깊어지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엄청난 민족적 시련 속에서 조국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당장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니나 교육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교육자가 되어 후세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심어준다면 더 이상 고귀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교육자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이와 같은 뜻은 청남학교의 학감으로 있던 김태희 장로에게 전달되었고 김태희 장로도 최창남의 뜻을 받아드리게 되었으며, 소열도 교장도 흔쾌히 승낙하여, 1923년 27세에 청남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성실히 복무하면 장차 장래성도 보장되는 공직을 버리고 시설도 미약한 하나의 사립학교인 청남학교의 교사가 된 것이다.

## 2. 崔昶楠과 兒童文學

67) 『基督申報』 1927년 11월 2일자 2면.

최창남은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물에 잘 감동하며, 문학적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다. 성격은 조용하고 온유하면서도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특히 꿈나무인 어린이를 특히 좋아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면서 틈틈이 어린이를 위한 많은 동요와 동시를 지어 발표하였다. 그것도 단순히 어린이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민족을 안겨다 주는 소재의 작품을 많이 발표함으로써, 나라 없는 소년 소녀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 주고 어린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었다. 그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문학적 재능은 일제기 충북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요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그의 작품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도 투고하였으나 주로 『아희생활』이라는 월간 소년 소녀 잡지에 많이 발표하였다. 『아희생활』에 「사랑의 학교」란 제목으로 유럽 동화를 소개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주었는데, 이것은 일본 책을 통하여 유럽의 동화를 이해하고 소개한 것이었다.

또한 손수 동요 동화의 창작활동도 계속하였다. 이들 작품은 ‘늘봄’, 민족의 꽃 무궁화를 따서 ‘權堂’, 청주의 상당산성에 연유하여 ‘上黨城人’ 등의 아호를 사용하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1926년 1년 동안 간행된 『아희생활』 제2권 1호에서 제12호까지의 월간잡지에서 최창남의 글을 찾아보면 무려 6군데나 발견된다.<sup>68)</sup>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작품활동을 많이 하고 어린이 잡지에 투고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려 하였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부형들에게도 어린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임을 강조하면서 부형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부형모매(父兄母妹)님 여러분! 이세상의 영웅열사가 모두 어린아이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무럭무럭 자라는 싹을 복돋아 주십시오. 국가의 큰

68) 최창남 선생의 제2남으로 현재 영운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영주 선생을 만나 『아희생활』 제2권 1호~12호(1926년 1월~12월)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오랫동안 초등교육에서 교사생활을 거쳐 교장직을 최후로 퇴임하였는데, 그의 부친이 애독하던 잡지 『아희생활』을 고이 보관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외에도 집에 많은 어린이잡지들이 있었으나 해방 후 교육용 도서가 부족할 때 부친 최창남 선생이 그것들을 교육용 도서로 사용하도록 시내 여러 학교에 다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다고 어렸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여 전하여 주었다. 1926년 1년 동안 『아희생활』에 투고한 예를 찾아보면, 『아희생활』 제2권 2호 54쪽에 월간잡지사에 대한 소감과 기대를 투고. 제2권 3월호 46~47쪽에 「풀떡」이라는 소재로 유머를 소개. 제2권 6월호 38~39쪽에 「꽃주일을 당하여」 제2권 8호 34~38쪽, 제2권 9호 35~40쪽에 상·하로 동화 「호랑이 동생」 연재. 제2권 10호 50~55쪽에는 「계룡산 오누이 탐」 전설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물도 여기서 나오고 사회의 큰 재목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장래 여하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로 보던지 사회로 보던지 교회로 보던지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아동문제가 큰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sup>69)</sup>

라고 한 것이 그것으로, 이것은 그가 얼마나 평소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룡산의 오누이 탑과 같은 전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문화와를 소개함과 동시에 잊혀져 가는 우리 민족의 전설을 보존하려 하였다.<sup>70)</sup>

그는 아동문학가 방정환과도 교류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동화로 엮어 읽기 쉽게 간간이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널리 애용되던 소년소녀 잡지는 『어린이』와 『아희생활』이었다. 『어린이』잡지는 주지하다시피 아동문학가요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방정환(1899~1931)이 주재한 잡지로서 천도교 소년회가 뒷받침하면서 開關社에서 발행한 것이다. 반면 『아희생활』은 朝鮮基督教主日學校 聯合會에서 발행한 어린이를 위한 월간잡지이다. 이것은 후에 『아이생활』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였으며, 1925년 3월 창간되어 1944년 4월호를 끝으로 폐간된 일제기 가장 수명이 길었던 어린이 잡지이다.<sup>71)</sup> 초창기 발행인은 미국인 선교사 羅宜壽, 편집인은 鄭仁果였는데, 21×15cm의 크기로 60쪽 내외의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이 잡지에는 동화, 동시, 소설 등 문예작품과 역사 사화, 성경이야기, 위인 전기, 세계명작소개 등 교양의 내용, 그리고 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등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sup>72)</sup> 그러므로 이 『아희생활』은 요즘같이 어린이들에게 그저 놀이거리를 주거나 또는 지능개발을 위한 그러한 잡지가 아니라, 그보다는 나라 없는 소년소녀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면서 일제를 왜 물리쳐야 하며 어떻게 곳곳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잡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 잡지이지만 이 월간 잡지는 삭제 압수 등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아희생활』 제2권 10월호 42쪽을 보면 세로 2줄을 검게 먹물로 덮어 내용을 덮어 삭제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신라의 박제상을 소개하는 부

69) 최창남, 1926. 「꽃주일을 당하야」, 『아희생활』 2권 6월호, 39.

70) 『아희생활』 제2권 10호, 50~55.

71) 『아희생활』은 어린이 잡지들 가운데 가장 수명이 길었던 잡지이다. 조선야소교회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유인 것 같다. 18년 동안 통권 218호를 내었다.

72)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26. 『아희생활』 제2권 제1월호~12월호 ; 1974. 『대한 기독교 교육사』. 부통령을 역임한 함태영은 청주 제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임 중 청주지역의 선교와 교육과 민족운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희생활』의 본사 청주 지국장으로서 활동하였다. 1926년대 『아희생활』 잡지의 가격은 10전이였다.

분인데, 삭제된 곳을 최창남 선생은 그 페이지의 옆에다 만년필로 원문을 추적하여 다시 써넣었다. “내가 차라리 계림의 개 도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계림의 초달을 맞을지언정 일본의 록은 원치 않습니다 하고”라는 내용의 부분이였다.<sup>73)</sup>

입을 열었다 하면 구수한 이야기요 붓을 들었다 하면 재미있는 글이 되어 학생들을 기쁘게 하였는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민족과 우리의 글과 꿈과 용기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펼쳐주려 애썼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남학교 교우회에서는 동화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28년 9월 28일 밤에 청주읍교회 예배당에서 추석놀이 동화대회에 많은 청중이 참여하였다.

청주 청남학교 교우회에서는 9월 28일 밤에 청주 교회당에서 추석놀이 동화대회를 개최하여 수백 명의 청중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지내었다고 한다.<sup>74)</sup>

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당시 웅변대회와 동화 동요 대회가 교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청남학교 교우회에서도 동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어린이로 하여금 꿈과 용기를 갖도록 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복돋아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수 백명이 운집한 이 동화대회에 최창남 선생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국어 교사로서, 아동문학가로서 평소 많은 동요와 동화를 창작하고 보급하였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회를 주선하는데 크게 활동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 동화대회가 개최된 지 3일 뒤인 10월 1일에 청주기독교청년회에서 학술 강연회를 열었는데 그 때에도 최창남은 <아동과 동화>라는 演題로 강연을 한 것이 보인다.

청주 기독교 청년회에서는 10월 1일 밤에 청주 교회당에서 신공균씨 사회로 학술 강연회를 열었는데, 연제와 연사는 아래와 같다.

1. 영원한 암투(暗鬪) : 정기환(鄭箕煥)
2. 아동과 동화 : 최창남(崔稔楠)<sup>75)</sup>

73) 李永漢, 1926.10. 「박제상(朴提上) 하」 『아희생활』 제2권 10월호, 42. 이 책의 제27쪽, 제28쪽에 몇 줄이 삭제된 예가 보이고 있다.

74) 『基督申報』 1928년 10월 10일자.

75) 위 글.

당시 최창남 선생은 기회만 있으면 어린이, 동화, 동요 등을 소재로 삼아 즐겨 글을 쓰고 강연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마을에/ 움돋고 꽃피는 봄이 왔어요/ 한겨울 땅 속에 잠자던 개구리/ 바스스 잠깨어 뛰어납니다”라는 가사로 되어 있는 애창 곡 “봄이 왔어요”라는 동요를 작시하기도 하였다.<sup>76)</sup>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박청남 요, 박재훈 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래 말을 지은 작사자의 문제이다. 작곡자 박재훈은 바르게 되어 있으나 동요를 지은 작사자는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최창남 선생의 제자로서 많은 영향을 받고 교회 장로가 된 이창수 장로는 그의 저서에서,

(최창남) 선생이 여러 편의 동화를 발표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전해지지 않고 그 중에서 “봄이 왔어요”라는 동요 한편이 여러 종류의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나 작곡자 박재훈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작사자는 애석하게도 성씨가 바뀌어 박청남, 박천남, 남청남 등 난맥적(亂脈的)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한심하고 딱한 노릇이다. 속히 책임 있는 출판사가 작사자의 성명을 정정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sup>77)</sup>

고 하면서 작사자의 오류를 지적하며 최창남으로 바로 잡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1952년 청주 여고 1학년 시절 최창남 선생으로부터 국어를 배웠다는 한 제자는,

최 선생님이 덕에 계시는데,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래가 바로 선생님이 지어 발표한 동요였대요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를 확인하여 보니, 선생님은 본래 “바스스 잠에서 깨어납니다”라고 하였는데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의 가사에는 “바스스 잠 깨어 뛰어 납니다”로 조금 바뀌었다고 수업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창남 선생님은 한글날이 되면 조회시간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상장 같은 것을 담은 네모난 상자에 “훈민정음 서문”을 정중히 받쳐 들고 나와 학생들 앞에서 엄숙히 낭독하는 등 그렇게 한글을 소중히 여기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칠판에 한글을 쓰실 때에도 언제나 정자로 큼직하게 쓰셨어요. 한글을 흘려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한글을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면 혼이 났지요.<sup>78)</sup>

라고 당시의 최창남 선생에 대한 추억을 생생하게 필자에게 전하였다.

76) 이 동요의 작곡자는 박재훈, 작시는 박청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의 작사자 박청남은 본래 최창남의 작시가 이렇게 잘 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77) 이창수, 앞 책, 285.

78) 1999년 3월 31일 李惠淑과의 대담

최창남의 문학적 소질과 애교정신이 인정받아 운동할 때 부르는 운동가, 졸업식에 부르는 노래도 최창남이 손수 지은 노랫말을 사용하였다.<sup>79)</sup> 이 때 불렀던 운동가 및 졸업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80)</sup>

① 운동가

1) 장엄하고 활발스런 청남학도야/ 오늘은 우리학교 운동 날일세  
공부할 때 공부하여 심신 기르고 / 운동할 때 운동하여 심신 기르세

(후렴) 나가세 나가세 앞만 보고 나가세/ 용맹스레이 분투하여 월계관을 얻도록  
반도 정기 타고난 배달의 소년

2) 이 땅을 끌고 갈 우리 동무들/ 무쇠 같은 팔다리 날뛰는 곳에  
용감한 기상이 늠름하구나

② 졸업가

1) 춘풍 추우 육년을 힘쓴 보람이/ 형설에 공 쌓은 탐 뚜렷하구나  
동무들의 애정과 선생님 은혜/ 만사 형통 아울러 평강을 축복

2) 무궁화로 수놓은 내학교 휘장/ 아름답고 뜻 깊은 청남의 마크  
몸은 비록 더나나 마음 두노니/ 길이 길이 두고서 기념하리라

운동가에서도 “무쇠 같은 팔다리 날뛰는 곳에 용감한 기상이 늠름하구나”라 하여 소년소녀들의 기상을 잘 강조하고 있고, 졸업가에서도 “무궁화”, 청남의 “휘장”과 “마크” 등을 내세워 애족애교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 청남학교의 교가도 소개해 본다.

( 교 가 )

아세아주 동부 돌출한 반도/ 기묘하고 화려한 이 강산에

79) 『淸州市誌』, 187.

80) 이 때 불렀던 운동가 및 졸업가의 악보를 찾으려 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노랫말은 1930년대 청남학교 재학하였던 전종섭, 신관우, 정인관 등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것이다.

만세 반석 굳은 터를 닦으사/ 후련하게 세운 내 청남학교일세  
귀하고 귀하다 이니 청남학교를/ 영원무궁토록 보존해 만만세

흔히 교가라 하면 그 지역의 산천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남학교는 “아세아주 동부 돌출한 반도”라 하여 우리 한국 강토로 노래가 시작하고 있어 청남학교의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실로 최창남 선생은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늘 도와주는 보기 드문 교육자요 아동문학가였다고 할 수 있다.

### 3. 崔昶楠과 한글운동

최창남은 국어교사요 한글운동가로서 우리말 교육을 강조하고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일제가 민족 말살정책으로 점점 한글을 폐지하여 나갈 때 최창남은 역으로 한글 철자법을 익히게 하고 한글 바로 쓰기를 가르쳤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교내에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교외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청주 청년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토론하며 우리말을 익히도록 하였다. 일경이 한글운동을 일종의 민족운동으로 보고 이것을 철저히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창남은 우리말과 글을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일제기 청주읍교회에서는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야학을 운영하였다. 야간을 이용하여 문맹자를 교육한 사례는 일찍이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81)</sup> 초등학교 기관 만으로서는 당시 민족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인식한 청주읍교회 지도자들과 청남학교 교사들이 청주읍교회에서 부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것이다. 주로 한글과 성경과 산술을 교육하면서 문맹퇴치와 애국계몽사업을 펼치었다. 1928년 10월 15일에도 청주기독교청년회와 여자기독교청년회가 합동으로 청주 야학회를 개설하였다.<sup>82)</sup> 이날 밤 오후 7시에 청남학교에서 최창남선생의 사회로 개학식이 거행되고, 그 이튿날부터 수업이 진행되었다. 입학생이 88명(남 18명, 여 70명)이나 모였으며 16명의 교사가 배치되었다. 입학금은 20전이었으나 수업료는 무료였으므로 경비는 주로 회원의 회비, 교회, 선교사 및 유지의 후원에 의해 충당되었다. 여기서 다루는 과목은 한글, 성경, 산술, 일본어였다. 그러나 일본어는 당국의 눈을 의식한 형식상의 과목이었고 주로 국어와 산술을 위주로 한 문맹퇴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 문자 보급 운동을 더욱 고양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에서는 대개 1개월 정도의

81)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북노회, 1998. 앞 책, 185.

82) 『기독교신보』 1928년 10월 24일자.

단기간에 다 깨쳐서 읽고 쓸 수 있게 한 한글 교재를 편집하여 보급하였는데 이것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문맹 타파가를 보급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귀 있고 못 들으면 귀머거리요/ 입 가지고 말못하면 병어리라지  
눈뜨고도 못 보는 글의 소경은/ 소경에다 귀머거리 또 병어리라

듣는 대신 보란 글을 보도 못하니/ 귀머거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말하듯이 써 낼 글을 쓰도 못하니/ 병어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뇨

낫 놓고 기자를 누가 모르리/ 창엿 등 너은 절로 알리라  
자들고 세로 재면 |자가 되고/ 흥두깨 가로놓으면 -자가 되네

길마가지 사에 코뚜레 ○/ 지게다리 ㅏ자를 뒤집음 ㅑ자  
하루 한자 새새 틈틈이/ 아무러한 둔재라도 다 깨치리라

이런 식으로 노래로 글자를 풀어서 쉽게 깨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야학은 읍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각 교회를 중심으로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야학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1927년에는 석화교회에서도 김영한 씨 외 3인이 야학회를 설립하여 주경야독하는 농촌야학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야학은 농촌의 문맹률을 낮출 뿐 아니라,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던 농민들로 하여금 일반상식을 넓히며 품격 도야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sup>83)</sup>

1930년대 동아일보는 한글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동아일보와 조선어학회는 한글보급운동을 일으켜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선어학회의 李秉基, 權憲奎, 李常春, 李允宰, 金允經, 申明均, 李克魯, 崔鉉培 등 한글 학자를 동원하여 麗水, 順天, 木浦로부터 會寧, 龍井, 定州에 이르기까지 남북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고, 이러한 강습회는 1932년에도 각 지역에서 대 성황을 이루었다.<sup>84)</sup>

이러한 한글 보급운동이 확산되고 있을 때, 최창남은 평소 교류하고 있던 최현배 선생을 초청하여 한글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아동문학가 방정환씨와 교류하며 조국의 역사도 동화식으로 읽기 쉽고 알기 쉽게

83) 『기독신보』 1927년 11월 2일자. 이때 교사로 신창영, 신경준, 이규옥, 하상원 등이 수고하였다.

84) 조용만, 1969. 「일제하의 우리 신문화운동」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민중서관), 195~197.

간간이 발표하였다. 역사가 정인보 선생과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과도 함께 교류하며,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동아일보 지국장 김동환 선생과 협의하여 한국 학자 최현배 선생을 초청하여 창남학교(망선루)에서 7일간의 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 땅에 아동문학을 창달 전승하려는 일과 한글 철자법을 발표하며 나라의 역사를 알기 쉽게 발표하여 조국의 위업을 드러나게 하니 왜정은 이를 주시하며 제약을 가해 오기 시작하였다. 변형복 형사와 도강현 형사가 수시로 가택 수색을 하며 매일 학교에 출근하다시피 번갈아 찾아 와 은연중 제재와 협박을 가했다. 그럼에도 선생은 굴하지 않고 방학이 되면 서울로 선배를 찾고 지방으로 다니며 버려지고 숨은 동요 동화를 찾았다.<sup>85)</sup>

라 한 것을 보면, 그는 방정환, 정인보, 최현배 등 어린이 운동가 및 한글학자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사회계몽 및 민족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1932년 8월 여름방학에는 최현배 선생을 초청하여 망선루에서 7일 동안 <한글 강습회>를 열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한글 맞춤법을 강의하게 하였다. 이러한 강습회를 통하여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해명하고 새 철자법의 문법적 기초 지식을 익히게 함이었다.<sup>86)</sup>

또한 일제 시대의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 교과서를 『국어독본』, 우리말 교과서를 『조선어 독본』이라 하여,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하고 있을 때, 그는 우리말 교과서를 『국어독본』, 일본어 교과서를 『일본어 독본』으로 책의 표지를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총독부가 조선어 독본을 폐지하여 버렸을 때에, 청남학교에서는 헌책을 구하여 계속 사용하는 등 민족 문화의 수호와 민족교육을 추진하여 나갔는데, 이 때에도 우리말 교육을 담당하던 최창남이 앞장서서 헌책 구하여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sup>87)</sup>

선생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개교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크게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청주 읍에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모든 문화의 중심이 되고 수백 수천의 영재를 길러낸 사업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개교이래 30여 정상 온갖 풍상과 경험을 다하여 온 청남학교를 제외하고 또 어디 있겠는가. 이 학교는 파란 많은 30여 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청주읍 교회당에서 소열도 교장의 사회로 개

85) 이창수, 『回想錄』, 249.

86) 1932년 8월 10일, 강습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망선루를 배경으로 최현배 선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다. 이 때 강습회에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최창남 선생 및 강습생을 포함하여 39명이었으며 사진 상단에 “청주한글강습회기념(1932. 8. 10)”이라 하여 일자가 정확히 적혀 있다.

87) 청주시지 편찬위원회, 1997. 앞 책, 186.

교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정규태 씨의 연혁보고와 최홍모씨의 기념사와 이창재 장로의 설교가 의미 심장하였고 설립자 및 10년 근속자 민노아, 소열도, 최창남 씨 등의 표창이 있었다.<sup>88)</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인데, 이 때에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던 민노아, 소열도 두 선교사와 함께 최창남 선생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최창남은 민족의식이 강하여 늘 한복을 입고 출근하였다. 그것도 무명 두루마기에 검정 물을 드려 입었으며 웃고름을 다는 것도 낭비라 생각하여 단추를 달고 다닐 정도로 근검 절약의 정신이 투철하였다고 전해진다. 밤에는 신뢰하는 학생들을 불러 태극기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최남선이 쓴 조선역사를 기초로 단군조선을 가르쳐 주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최창남 선생에게는 일경이 늘 동행하면서 감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소한 일로 가택 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동요 동시를 압수 당하기도 하는 등, 그에게 많은 탄압과 고통이 뒤따랐던 것이다.

일제기 한국기독교가 한글의 보급과 연구에 다른 계열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글연구와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 가운데, 주시경, 최현배, 이운재, 김윤경, 장지영 등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것은 기독교-한글-민족문화로 이어지는 관계를 잘 짐작하게 하는데, 이러한 시기에, 최창남은 기독교, 한글, 민족문화를 한 선상에 올려놓고 실천한 충북최초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창남 선생은 자상하면서도 대범하고, 대범하면서도 치밀하게, 제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은 실천적인 교육가이다. 최창남 선생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고 장차 목사가 되었으며 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역임한 박종렬 목사는 「생활로 드러난 신앙, 최창남 선생」이라는 글에서

6학년 때 졸업반 학생들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나는 편입생이어서 1학년 때부터 여행비 적립을 못하였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납입해야만 하였다. 그런데다가 우리 집에는 때마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는 수학 여행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아신 최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조용히 나를 불러 가정 형편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내 손에 봉투를 쥐어 주시면서 지금 곧 서무과에 여행비를 납입하고 이번 수학여행에 함께 다녀오라는 것이 아닌가... 최 선생님은 온화하며 기품이 있었고 지식과 인격의 모든 면에서 스승이 되는 분이셨다. 외형으로가 아닌 생활로 신앙을 살아가신 그분을 좇아 나 역시 완고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인이 되

88) 『기독신보』 1935년 3월 27일자 4면.

었다.<sup>89)</sup>

라고 하면서, 최창남 선생의 영향을 받고 신앙인이 되었으며 장차 목사가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한학 외에는 진서가 없고 유교 외에는 모두 사교라는 식의 전통적인 유교의 집안에서 자란 박 목사가 청남학교에서 지식과 인격이 뛰어나고, 생활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최창남 선생을 만나, 그의 영향을 받고 마침내 신앙인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박 목사가 젊은 시절에 바른 인생관과 신앙관을 형성하여 장차 목사가 된 것도 바로 최창남 선생의 영향이라고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은사”요 예수를 믿게 한 “신앙의 선배”로 최창남 선생을 그리고 있다.

최창남 선생은 해방 후 청주사범학교, 청주고등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청주공업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주중학교 등을 두루 거쳐 청주주성중학교를 마지막으로 1961년 9월, 정년 퇴임함으로써 교직 생활을 마쳤다. 일제 시대에 보통학교 교감을 지낸 분들이 해방 후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한 예가 많았으나, 최창남 선생은 정년퇴임 때까지 다른 보직 없이 오직 중·고등학교 국어를 담당하는 평범한 교사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순수한 교육의 소임에만 성실하였고,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장로감이면서도 그저 평신도로서 조용히 신앙을 실천하다가 생을 마쳤기 때문에,<sup>90)</sup> 그가 세상을 떠난 오늘날에도 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 IV. 結 論

이상, 청주 지역 기독교 사학인 청남학교의 민족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학교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청남학교는 1904년 설립된 청주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서 이 지역 근대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청남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로서, 민족 수난기에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에 입각한 교육방법을 택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여 나갔다. 학생들에게 근대적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화사상을 심어주고 남녀 평등과 민주주의의 사상을 고취하였으며 자주성을 함양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문명개화와 근대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의 민간 사립학교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89) 박종렬, 1990. 「생활로 드러난 신앙, 최창남 선생」, 『빛과 소금』 1990/2, 151. 박종렬 목사는 최창남 선생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후 목사가 되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측)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90) 1980년 5월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침.

하였으니 실로 충북지역 신교육의 계기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청남학교는 민족의식 고취와 항일 구국 운동을 고무하였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 유대민족의 바빌론의 포로생활 및 로마속국에서 고통받는 내용 등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채택하여 민족의 독립과 구원을 강조하였다. 민족의식이 강한 교사들은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교육이고 민족과 교육은 일체라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주입시키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민족 구국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항일 운동에 크게 자극하였고, 또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이 이 학교로부터 많이 배출되었다.

셋째, 민족의 정통성 계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의 강압적 통치는 민족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이른바 동화정책으로 일본화를 유도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면서 민족의 정통성 계승자로서 청남학교는 작용하였다. 특히 학교가 휴교 처분을 당하기까지 일제의 신사참배에 적극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대한 항일과 민족 수호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넷째, 오랫동안 청남학교 교사로 사용된 망선루는 근대교육의 산실이요, 일제기 민족 문화의 보루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망선루를 거쳐간 기관 및 단체로서는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상당유치원, 청주성경학원, 청신야학, 세광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신고등공민학교, 청주시 청년회, YMCA회관, YWCA회관, 해방 후의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忠北支部, 淸州三角少年團(대한보이스카우트의 전신)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각종 강연회 및 집회 장소로도 널리 활용되었다. 청주가 지니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는 의미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건물은 바로 망선루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런데, 이 귀중한 문화재가 이미 노후하여 현재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으로부터의 시급한 복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다섯째, 최창남은 어린이 운동과 한글운동을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는 많은 동요 동시를 지어 나라 잃은 소년 소녀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고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한글을 금하고 일본어를 전용으로 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한글의 전수와 보급에 앞장섰다고 볼 때에, 그는 당대 보기 드문 교육자일 뿐만이 아니라 일제기 충북 최초의 아동문학가요 한글 운동가로서 재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여섯째, 교육을 통한 의식 개발과 많은 인재를 양성해 내었다. 청남학교는 전통적인 봉건의식과 미신을 타파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근대 문화 운동을 선도하였다. 이 곳 출신들 가운데에는 후일 목사나 장로가 되어 한국 기독교에 많은 공을 세운 인물들이 배출되었음은 물론, 교육계·의약계·정치 행정·

사회 문화 단체 · 실업계 · 예술 문화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근대문화 창달에 기여한 인물도 적지 않다. 특히 청주의 육상 · 축구 · 야구 등 각종 스포츠 발전에도 청남학교는 일익을 담당하였다.

실로 청남학교는 민족문화가 소멸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 · 사회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족적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이 지역의 근대교육의 선구로서, 교육구국운동의 중심체로서, 민족의 정통성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여 왔고, 이것은 해방 후 청주 지역의 교육 · 사회 · 문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